

解放後 濟州研究概觀(Ⅲ)*

—社會科學分野—

金榮敦** 高南旭*** 夫萬根****
申幸澈*** 金泰保**** 許鐵洙****

目	次
I. 序	V. 觀光
II. 社會・人類學	VI. 教育
III. 法政	VII. 結論
IV. 産業・經濟	

I. 序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요마적에 이르러 濟州研究에 대한 熱意와 進陟이 자못 눈에 띄은 반가운 일이다. 本耽羅文化研究所에서는 제주연구의 重要・時急性에 비추어 이제까지의 조사・연구업적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고 그 연구경향을 집약하는 일이 우선 필요하리라 확신하고 1981년도부터 이 작업을 성실히 벌여왔다.

곧 1981년도에는 語文學・民俗分野의 조사・연구작업을 논문과 저서별로 모

* 이 논문은 1983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教授

*** 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副教授

**** 社會科學大學 行政學科 助教授

***** 社會科學大學 社會學科 助教授

***** 社會科學大學 觀光學科 助教授

***** 師範大學 商業教育科 助教授

아 이를 카드화하고 그 ‘論著目錄’과 더불어 연구경향을 개관하였고, 82년도에는 歷史・考古分野를 같은 방법으로 다루어 보았다. 그 결과는 각각〈解放後濟州研究概觀：語文學・民俗分野〉(《耽羅文化》，창간호) 및〈解放後濟州研究概觀(II)：歷史・考古分野〉(《耽羅文化》，제2호)로 집약되었다. 이 작업은 제주연구에 관계되는 국내외 인사들에게 그 나름의 편이를 제공케 됨으로써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대학원을 포함한 학생들에게도 先功業績을 이내 파악하는데 도움되는 보람이 있었다. 본연구소에서는 이처럼 論著目錄을 수합하여 그 연구경향을 살피는 작업과 더불어 論著解題作業까지 앞으로도 즐기차게 이어나가려 한다.

이번에는 제주관계 社會科學分野 전반의 論著를 대상으로 삼았다. 분야가 너무 광범해서 작업의 번거로움이 따를 줄 알면서도 두루뭇수리로 한꺼번에 작업하게 됨은 濟州研究熱이 高調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이 時點에서 힘 닿는 데까지 성실하게 이바지하려 함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 우선 社會・人類學, 法政, 産業・經濟, 觀光과 教育分野를 망라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조사・집필을 분담했다.

○總括 및 序・結論	金榮敦
○社會・人類學分野	申幸澈
○法政分野	夫萬根
○産業・經濟分野	高南旭
○觀光分野	金泰保
○教育分野	許鐵洙

연구진은 몇 차례의 협의를 거치면서 이의 조사 연구방법을 신중히 논의하고 다음 몇가지를 합의했다.

① 조사대상으로 삼을 資料나 論文은 단행본 및 學術誌에 게재된 것에 국한함이 원칙이지만, 논문발표지면이 뜻과 같지 않았던 과거의 실정을 감안하여 논문으로서의 격식을 못 갖춘 글이라도 참고될 만한 것이면 論文格式이나 誌面의 성격을 불구하고 대폭 포괄하기로 하였다.

② 조사 연구작업은 논의대상을 고르고 우선 본연구소에서 마련된 論著카드에 기입하는 일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論著目錄 작성 및 연구경향 고찰에 신중을 기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본문 서술에서 논문은 〈 〉, 저서는 《 》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II. 社會・人類學

《濟州道誌》는 제 5편, 제 4장 ‘학술’란에서, 제주연구에 있어서 “社會分野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그 실적이 별로 두드러지지 못하다”고 하고 그 이유로 “연구진이 거의 대학교수에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그 연구취향이 일반론적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引用에 있어서 ‘社會分野’란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를 일컫는 것이어서 그 실적을 전반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분야 즉, 사회 및 인류학 분야(단, 민속분야제외)에 관련지어 보면, 상대적인 의미에서 수긍이 가는 지적인 듯하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은 검토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이 글의 의도를 보다 분명히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무릇 연구실적은 학문하는 이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따라서 실적이 두드러지지 못하다는 것은 학문하는 이들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과 그들의 연구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학문하는 이들이 많을 때 그 분야의 연구업적이 많아진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학문하는 이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적어도 사회 및 인류학 분야에 있어서 보면 그들은 해당 전공분야에 있어서 일정의 학문적 훈련과정을 거쳐서 학문적 시각을 갖춘 사람들로써 학문공동체 속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학문의 훈련은 연구의 아마츄어리즘(amateurism)을 방지하여 주며 학문공동체내의 소속은 전문성을 한결 조장해 준다. 제주연구를 위한 별다른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주연구

1) 濟州道誌編纂委員會, 「濟州道誌」, 濟州道, 1982, p.490.

의 전문가는 대학교원일 수밖에 없으며, 학문의 전문성으로 보아 그 이외의 어떤 사람들이 학문하는 이들에 해당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濟州道誌》가 지적하는 대로 연구진이 거의 대학교수에 한정되어 있는 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그 연구진의 연구취향이 일반론적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사회학 및 인류학의 학문적 관심이 이론지향적인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사회학은 民俗誌 (ethnography) 와는 달라서 일반적인 이론의 틀을 바탕으로 대상을 연구하거나 그 연구결과에서 어떤 일반화를 시도한다. 어떤 특정 사회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 사실들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이론적, 방법론적 배경을 고려하게 된다. 이론적 요소를 가미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제주연구의 상황에서는 사회학적, 인류학적 연구는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연구주제들을 포괄적 수준에서 잡는 경향이 불가피하게 된다. 제주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주의 특성현상 자체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의 이론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설명하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여기에 《濟州道誌》가 지적하는 바처럼 그 연구가 ‘일반론적’이라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이 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려 한다.

- ① 연구의 의도가 제주연구 자체에 있거나 보편적인 이론에 지향되어 있거나 간에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학·인류학 전공자의 글은 모두 포괄한다.
- ② 전공자의 글이 아닌 경우, 사회과학의 다른 영역에 들어갈 수 없으면서 그 주제가 사회학·인류학적 성격의 글은 이를 포함한다.
- ③ 다만 논의의 전개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속차원의 글은 제외한다.²⁾
- ④ 이상의 범위 기준에 관계 없이 인구관계와 여성관계의 글을 포함하여 다룬다.

2) 민속분야의 업적은 이미 다루어져 있다. 金榮敦(外), “解放後濟州研究概觀: 語文學 民俗分野”, 탐라문화연구소, 「耽羅文化」創刊號, 1982, pp.185 ~ 237 참조.

이 글에서 사회학과 인류학을 같은 범주에 묶어 다루게 되는 것은 이 두 학문분야가 서로 밀접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金瓊東은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그 상호관계를 따지고 있다.³⁾

첫째, 한국사회의 이해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협동이 필요하다.

둘째, 방법론에 있어서도 두 분야의 협동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대상의 영역에 있어서도 두 영역은 상당히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연구물들의 내용을 검토, 평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논저의 제목을 연대기적으로, 관련된 것끼리 묶으면서 서술하게 될 것이다. 자료의 탐색이 서툴러서 이 글에서 본의 아니게 빠지고 있는 글들은 다음 기회에 추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研究動向의 年代記의 考察

해방후 제주사회의 사회·인류학적 주제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1940년대 말 石宙明의 《濟州島의 生命調査書：濟州島人口論》(1949)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전문성에 있어서 본격적인 접근은 1959년 7월, 당시 ‘제주도종합학술조사단’의 일행에 편성되어 내도한 ‘사회학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사회학반’은 서울대 교수 이 만갑의 인솔하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조교와 3·4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 북제주군 애월면 금성리를 대상으로, 현지에 민박하면서 질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⁴⁾ 한국에 있어서 농촌부락에 대한 최초의 현지조사가 “1958년 한국사회과학연구

3) 金瓊東, “社會學과 한국의 인류학”, 『現代社會學的 爭點』(제 10 장), 法文社, 1983, pp.388 ~ 390.

4) 이 자료는 부분적으로 필자에 의해 학사논문의 자료로 이용되긴 했으나 보다 학문적인 논문으로 되어나오지 못한 채 사장되어 오다가 최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의 한상복 교수가 찾아내어 보관중에 있다. 차후 분석, 발표될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학술조사단’은 그 정규 성원 총 70명과 보조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활동기구를 보면 당시 서울대 총장 尹日善을 단장으로 3명의 운영위원과 운영본부 및 인문·사회·자연 과학 분야별 조사반을 포함하고 있었다.

회에서 나온 자금으로 이 만감에 의해 시도되었다”고 보면,⁵⁾ 금성리에 대한 조사는 사회학적 조사로서는 꽤 빠른 경우에 해당한다.⁶⁾ 女性問題에 관련하여 보면 崔鶴蔭의 글, 〈濟州島民謡에 나타난 海女の 生態〉(1958)가 발표된 이외에 1950년대에는 이렇다 할 연구물이 없는 것 같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어·국문학 분야의 전공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민족학적 연구들이⁷⁾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회학이나 인류학 부재의 상황 속에서 사회학 특히 인류학 분야의 연구에 크게 공헌하는 바가 되었다.

泉靖一이 1965년, 30년만에 다시 내방하여 조사한 후 쓴 《濟州島》(1966)는 제주연구에 있어서 사회·인류학적인 최초의 저서이다.⁸⁾ 그 내용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부 濟州島民族誌

제 1 장 自然環境

제 2 장 村落의 研究

제 3 장 家族의 研究

제 4 장 超家族集團의 研究

제 5 장 濟州島의 宗教

제 6 장 濟州島民具의 解説

제 2 부 東京에 있어서의 濟州島人

조사반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인문과학부문에 ‘언어반’, ‘민속반’, ‘민요·전설반’, ‘역사·고고반’이 포함되고 사회과학부문에 ‘사회반’, ‘경제반’, ‘지리반’, ‘수산업반’, ‘인구반’이 포함되었으며 자연과학 부문에는 ‘식물반’, ‘동물반’, ‘지질반’, ‘보건반’, ‘기상반’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조사사업은 亞細亞財團의 재정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 5) 李萬甲, “韓國의 社會學”, 東亞文化研究所(편), 「韓國學」, 玄岩社, p.518.
- 6) 사례조사나 참여관찰 등의 기법에 의한 조사는 이미 李相佰·李海英·崔在錫 등에 의하여 1954, 5년도에 실시된 바 있다(崔在錫, “解放 30年の 韓國社會學”, 「韓國社會學」10輯, 1976, p.15, 〈表3〉 참조).
- 7) 金榮敦(外), 앞의 글 참조.
- 8) 泉靖一은 1935년 여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국문학 전공의 경성제대 학생이었다. 같은 해 겨울 한라산 등반 중 岳友를 잃기도 했는데 이런 사건이 얹힌 제주 방문이 인연이 되어 전공을 국문학에서 사회학으로 바꾸었다고 한다(宮原兎一, “書評: 泉靖一著, 「濟州島」, 朝鮮學會, 「朝鮮學報」44輯, 1967, p.193).

- 一. 머리말
 - 二. 東京 X地區에 있어서의 濟州島의 移住經過
 - 三. X地區에 있어서의 濟州島人의 分布・社會結合
 - 四. 家族의 構造
 - 五. 姓氏와 이름
 - 六. 男女의 生活
 - 七. 消費生活
 - 八. 教育・宗教生活
 - 九. 性格
- 제 3 부 濟州島에 있어서의 30 年
- 一. 머리말
 - 二. 經濟의 變動
 - 三. 家族과 親族의 變動
 - 四. 에피로그

“第一部 濟州島民族誌는 1938年 京城大學校 學士論文인 〈濟州島:社會人類學的研究〉와 〈濟州島와 떨어진 半島의 地理와 風俗〉(族と傳説 11-12, 1938)을 改革한 것이며, 第二部 東京에 있어서의 濟州島人은 1951年 《日本民族學研究》 16-1에 泉靖一外 4人의 名義로 發表한 것이고, 第三部는 이 책에서 처음 發表되는 글이다. 그리고 上記 學士論文의 一部는 1951年 《明治大學 政經論叢》 20에 〈濟州島의 村落組織〉이란 論文으로 發表된 일이 있다. 또 第一部는 1936년과 1937년 兩년에 걸친 濟州島 現地調査에 의거한 報告書이다. 現地調査地는 北濟州郡 朝天面의 橋來里, 大屹里, 北村里, 臥山里, 新村里, 濟州邑의 禾北里 등 6개 部落과 半島인 것으로 推測된다. 第二部는 1950년 5월부터 9月中旬 사이에 73家口를 調査한 결과이며, 第三部는 1965年 10月 團體觀光團의 一員으로 來韓하여 4日間 橋來里에 들르기도 하였지만 주로 禾北里와 大屹里를 調査한 것이다.”⁹⁾ 1967年 宮原兎一은 그 書評에서 이 책이 濟州도의 “기초적인 문헌으로서, 또한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의 자료로서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다.¹⁰⁾ 1975년 崔在錫은 같은 책에 대한 書評에서 그 내

9) 崔在錫, “書評: 泉靖一著, 「濟州島」, 東大出版會, 1966”, 韓國文化人類學會, 「文化人類學」 7輯, 1975, pp.165 ~ 166.

10) 宮原兎一, 앞의 글, p.194.

용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여러모로 지적하고 있다.¹¹⁾

한편, 1965년 《제주도》誌에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글 李玟泰의 〈우리 사회의 봉쇄성·보수성: 특히 제주사회를 중심으로〉가 있고, 1968년 아세아재단의 재정지원으로¹²⁾ 趙文富의 〈濟州道地域의 葬儀·墳墓制度 改善方案 調査研究〉와 玄容駿의 〈濟州島의 海村生活 調査研究〉가 나오기도 했다.

濟州島叢書④로 발간된 石宙明의 《濟州島隨筆》(1968)은 해방후 40년대의 제주에 관한 기록으로 중요한 문헌으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이 책의 III편 중 ‘社會’ 및 ‘人口·特殊部落’의 항은 사회·인류학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 저자는 그 책의 서문에서 “‘濟州島’는 나의 연구테마의 하나이다. 일상 생활에서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것 중에서 제주도에 관한 것이라면 적당한 제목을 붙들어서 수시로 카드에 기록, 쌓아두었다가 그 일부를 정리한 것”이라고 쓰고 있다.

여성문화에 있어서는 주로 해녀에 관련한 글들이 보인다. 석사논문으로 高翔龍의 〈韓國의 入漁慣行權에 관한 研究〉(1967)가 있고, 李且淑의 〈우리나라 여성의 法的 地位와 제주도의 蓄妾의 慣行〉(1968), 洪性穆의 〈海女와 漁場〉(1962), 洪喜久의 〈本道 出稼海女の 權益問題〉(1968) 등이 《제주도》誌에 발표되었으며, 閔京姬의 〈韓國海女の 歷史 및 生活實態〉(1964)가 《梨大史苑》에 실렸다. 대체로 1960년대의 제주연구의 분위기는 민속적 차원의 관심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사회·인류학적 연구는 극히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이르러 제주도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특히 197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사회학 전공자들의 연구가 속속 나타나게 된다.

1970년대 전반기에 있어서 보면, 1973년 梁相翊은 〈濟州島 傳統文化에 대한 外國人의 影響〉을 발표하였고, 이어 1974년 아세아재단의 재정지원으로 梁相翊·金榮敦 공동의 연구인 〈濟州道の 傳統文化에 미친 近代化政策 및 外來人의 影響〉이 이루어졌다. 玄容駿은 〈Family and Religion in South Korea, Chiefly Based on Cheju Island〉(1972)를, 佐藤信行은 〈濟州道の 家族〉(1973)

11) 崔在錫, 앞의 책, 1975, pp.168~170.

12) 이에 따른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耽羅文化」創刊號, 1982, p.246 참조할 것.

을 발표하였다. 1970년의 玄容駿의 〈濟州島 海村生活의 調查研究〉는 민족지적인 글로서 그 뒤 이어지는 민족지적 현지조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겠다.¹³⁾

한편 제주도가 펴낸 《濟州道 文化財 및 遺蹟 綜合報告書》(1973)에는 제 1장으로 ‘사회’ 항목(玄容駿 집필)이 들어 있다. 金榮敦이 문화재관리국의 의뢰에 따라 집필한 《旌義 고을》(1983, 문화재관리국에서 民俗資料保護區域 조사 보고서 제 55 호로 발간된 바 있으며 뒤에 《탐라문화》 2호(1983)에 〈旌義고을(1)〉로 그 전반부가 게재됨)은 그 내용의 일부로 ‘사회’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관계의 글로서는 60년대에 계속해서 해녀를 다룬 글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康大元의 《海女研究》(1970, 1974)가 단행본으로 나왔고, 金榮敦은 1970년에 〈海女の 漁撈方法〉, 〈海女の 收益侵害〉, 〈濟州島海女研究序說〉 등 3편을, 1971년에 〈濟州島海女の 出稼〉, 1975년에 〈海女놀이〉를 각각 발표하였다. 일본인 稻田菊太郎도 〈濟州島 潛女集村(一)〉(1973)을 내놓았다.

제주도의 기층문화에 대한 글도 발표되었는데 玄容駿의 〈濟州道 文化의 基礎的 性格〉(1975)과 〈濟州島の 基層文化〉(1975)가 그것이다. 인구에 관한 글로서는 姜相培의 〈濟州道內 人口에 對한 研究〉(1975)가 있다. 崔在錫은 1975년 泉靖一の 《濟州島》(1966)의 서평을 통하여 제주 가족에 대한 민감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제주대학에 관련학과 즉, 지역사회개발학과(뒤에 사회학과로 개편됨)의 설치에 따라 사회학·인류학 전공자들이 부임하여 제주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외부 인사들의 관심도 고조되면서 연구 분위기는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고 이는 1980년대로 계속 이어진다.

崔在錫은 1975년부터 1978년 사이에, 남제주군 성산면 삼달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11편의 가족과 친족에 대한 논문을

13) 그 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서는 1972년에 창천리를, 1973년에 우도를, 1974년에 가파도를, 1975년에 중문리를, 1976년에 난산리를, 1977년에 성읍리를 조사하고 이를 국문학보에 혹은 단행본의 보고서 형식으로 줄곧 발표하고 있다. 1982년에는 덕수리와 남읍리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내었다.

쓰더니 ¹⁴⁾ 1979년에는 또 다른 논문 2편을 더하여 단행본 《濟州島의 親族組織》을 출판하였는데 이는 한국 사회학자가 쓴 제주관계 저술의 최초의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緒 說

제 1 장 類型과 相續面에서 본 長男家族

제 2 장 家族의 現實的 類型

제 3 장 家族의 役割構造

제 4 장 潛嫂家族의 權力構造

제 5 장 婚姻儀禮

제 6 장 部落內婚과 親族組織

제 7 장 離婚과 再婚

제 8 장 妾制度

제 9 장 死後婚

제 10 장 祖上祭祀와 親族組織

제 11 장 養子制度

제 12 장 葬禮와 親族組織

〈附錄〉 濟州島社會組織關係文獻目錄(1945 ~ 1978)

이상의 구성내용 중 제 3 장 가족의 역할구조와 제 12 장 장례와 친족조직을 빼고 나머지 10 개 장의 내용은 이미 발표했던 논문이며, 이미 발표된 논문 중 〈濟州島의 自生的 核家族〉(1978)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著書에 대하여 著者는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本書는 濟州島의 親族組織에 관하여 그동안 써 온 既發表 및 未發表의 論文을 모은 것인데 그 가운데는 加筆한 것도 있다. 대체로 여기 수록된 논문은…… 현지 조사를 행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것은 調查部落 이외의 지역에서 수집한 資料에서 얻어진 것도 포함되어 있다. 本書는 12개의 論文으로 구

14) 11 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濟州島 潛嫂家族의 權力構造”(1975), “濟州島의 長男家族”(1976), “濟州島의 離・再婚制度和 非儒敎의 傳統”(1977), “濟州島의 部落內婚과 親族組織”(1977), “濟州島 農村家族의 現實的 類型”(1977), “濟州島의 婚姻儀禮와 그 社會的 意義”(1977), “濟州島의 死後婚”(1978), “濟州島의 養子制度”(1978), “濟州島의 祖上祭祀와 親族 構造”(1978), “濟州島의 蓄妾制度”(1978).

성되어 있으나 이것들은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緒說이라는 …… 序頭に 그것을 정리해 보았다.”¹⁵⁾

가족에 관한 또 다른 글은 金良順의 〈濟州道の 家族生活實態 一部에 관한 研究〉(1977)와 金惠淑의 석사논문 〈濟州道家庭에서의 夫婦關係〉(1977)이다.

社會學專攻 敎員로서는 맨 처음 제주대학에 부임한 朴在煥은¹⁶⁾ 성곡학술문화재단의 연구보조비에 의한 연구 〈人間相互作用에 관한 濟州道民의 社會意識：民俗資料를 中心으로〉(1977)를 발표하였다. 1978년 申幸澈은 제주도 농촌지역사회의 조사 분석을 통해 석사논문 〈地域社會開發 리더쉽에 대한 類型論的 考察：濟州道農村地域社會의 調査・分析〉을 내었다. 人口分野에서 姜相培는 제주교육대학 논문집에 두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濟州市의 人口에 대한 研究〉(1977)와 〈濟州道の 地域別 人口増減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1978)가 그것이다.

여성관계의 글들을 보면 1976년에서 1978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글들이 발표되었다. 1976년, 梁南順의 〈濟州道 女性의 衣生活意識에 관한 研究：主婦와 女敎師를 中心으로〉와 吳益成의 〈未婚女性의 家族計劃에 대한 知識 및 態度에 관한 調査〉가 있고 1977년, 姜柄燦의 석사논문 〈女性活動에 關한 研究：濟州道를 中心으로〉가 있고, 해녀관계의 글로서 金榮敦의 〈海女노래와 海女〉, 洪明杓의 석사논문 〈濟州道 海女の 權益被奪에 관한 研究〉가 있고, 稻田菊太郎의 〈濟州島 潛女集落(二)〉가 있다. 여성에 관한 또 다른 글들로는, 1977년 玄善伊의 〈既婚女性의 家族計劃에 관한 知識 및 態度에 관한 調査：제주시내 일부지역 기혼여성을 중심으로〉와 윤순영의 〈Occupation, Male House Keeper : Male-Female Roles in Cheju Island〉가 있다. 1978년, 鄭三好는 〈濟州道 女大生の 衣服行動과 價值觀과의 상관연구〉를 발표하였다. 趙惠貞은 1979년 〈An Ethnographic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라는 논문을 캘리포니아대학에 제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 글의 調査對象地는 제주도의 우도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해 趙惠貞은 《Korea Journal》

15) 崔在錫, 「濟州島の 親族組織」, 一志社, 1979, pp.2 ~ 3.

16) 교원이라는 신분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면 제주대학 최초의 社會學者는 국립제주대학 4대 학장으로 부임한 邊時敏이다(1976.1.1 ~ 1979.12.31 재임함).

에 〈Neither Dominance : A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를 발표했다.

조사보고서류의 종합 연구물 속에서도 사회·인류학류의 글들이 실리고 있다. 문화공보부에서 1977년 펴낸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에는 제1편으로 ‘社會’(李光奎 집필)가 있고, 濟州道の 지원으로 제주대학 통일안보연구소에서 연구한 《濟州道民의 意識構造 調查研究》중 제2장 ‘社會·文化에 관한 意識’ 부분이 있다. 또한 濟州大民俗博物館에서 낸 《海村生活調查報告書》는 용수리와 오조리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 내용 중 ‘社會背景’이나 ‘해녀’, ‘家族構造’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1979년 제주도의 지원으로 제주대학 탐라연구소가 개최한 ‘耽羅精神 探究’ 세미나에서 발표한 玄容駿의 〈民俗을 통해서 본 耽羅精神〉에는 가족구조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 세미나 내용은 그 뒤 玄平孝 外 7人의 명의로 〈耽羅精神 探究〉에 종합되어 제주대학 논문집 11집에 실리게 된다.

1978년 3월 28일에는 경기대학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제주도연구회가 발족되는데 같은 해 6건의 발표중 〈지역연구 표본으로서의 濟州島〉(장주근), 〈濟州島民의 儀禮服〉(고부자), 〈濟州島의 構造의 原理〉(강신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1979년에는 趙惠貞에 의해 〈人類學的 研究地域으로서의 濟州島〉가 발표된다.¹⁷⁾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주연구의 열기는 한층 가열된다.¹⁸⁾ 1979년 2학기에 객원교수로 제주대학에 부임한 인류학자 金漢九는 다음 해 崔在錫의 저서 《濟州島의 親族組織》을 비판하는 서평논문 〈崔在錫著, 濟州島의 親族組織〉(1980)을 《한국학보》 19집에 발표하였다. 이에 崔在錫은 1980년 가을 제주연구회의 한 발표에서 “濟州島 親族構造 研究의 問題點”을 다루었고 이어 《한국학보》 20집에 金漢九의 論評을 반박하는 〈社會科學의 基礎素養: 《濟州島親族組織》에 대한 김한구氏의 書評의 경우〉(1980)를 발표했으며 金漢九는 다시 〈전통문화에 관한 사회인류학적 고찰〉(1981)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제가 되고

17) 제주도연구회, 「濟州島研究會報」 1권, “연구발표회 실적” 목록 참조

18) 그 제도적 배경으로 특기할 만한 것은 1980년 사회학과가 정식 인가되었다는 것과 1981년 耽羅文化研究所가 법정연구기관으로 발족된 것이다.

있는 부락(남제주군 삼달 1리)의 부락구조, 가족제도 등을 다루면서 崔在錫의 입장을 논박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비판부재의 학문풍토에 자극제가 되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는 감정적인 갈등이 보이는 듯하였다. 당사자들 외에도 이 논쟁에 언급한 사람들로 全京秀와 李光奎가 있다. 즉, 全京秀는 《진단학보》 55호(1983. 7)에 최재석의 《濟州島의 親族組織》에 대한 書評을 실었다. 같은 해(1983) 李光奎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의 ‘제 2회 탐라문화학술회의’에서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이란 주제하에 “社會學的 側面”을 발표하였다. 全京秀는 예의 저서에 대해 이론 및 방법론, 자료, 기술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李光奎는 崔・金 두 당사자의 논쟁점을 지적하였다.

道民意識을 다룬 글로서 申幸澈의 〈濟州道民의 社會・文化意識上的 傳統性〉(1980)과 〈道民意識으로 본 濟州開發의 性格과 問題點〉(1982)이 있는데, 앞의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제주대학 통일안보연구소의 意識構造 調查研究의 資料를 재조직하여 쓴 글이고, 뒤의 글은 《濟大學報》의 特輯, 〈濟州道開發의 再照明〉의 한 부분으로 실은 글이다.¹⁹⁾ 濟州道가 主管하는 새마을운동 10주년 기념사업으로 낸 연구 논문집에 申幸澈・金泰保 공동연구인 〈새마을운동과 地域開發〉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지난 10여년 간의 濟州道 지역사회개발 성과의 특색과 현황과 그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종래의 제주연구에 있어서 보면 그 지역사회(農村과 都市)에 대한 접근이 대체로 민속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 대하여 1981년 이후 申幸澈, 鄭大然 등 사회학 전공자들에 의해 사회학적 접근이 시도된다. 申幸澈은 농촌부락 단위에 있어서의 권력구조에 관심을 갖고 제주도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표집, 현지조사를 거듭 실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韓國農村社會의 權力構造에 대한 研究: 제주도의 행정단위부락을 중심으로〉(1981), 〈韓國農村開發엘리트集團의 構造와 性格: 제주도 행정리 ‘里開發委員會’에 대한 지역사회권력구조론적 고찰〉(1983), 〈韓國農村地域社會의 特性과 그 權力構造類型間的 關聯性에 관한 연구: 제주도 행정리 대상으로〉(1984)가 그것인데 첫

19) 여기에 언급하는 이외의 意識을 다루는 글들도 많이 있으나 그것들은 “解放後濟州研究概觀”의 해당분야에서 다루게 될 것이므로 제외한다.

제 것과 세제 것은 문교부로부터, 둘째 것은 아산재단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鄭大然은 제주시 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고 사회적 비교의 행위를 분석하는 글 〈準據集團과의 社會的 比較가 行爲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1983)와 도시기능들의 적정분포를 알아보려는 글 〈濟州市의 生態學的 構造分析〉(1984)를 발표하였다.

在日僑胞에 대한 관심도 보이게 되는데 申幸澈・高性俊은 제주신문의 의뢰를 받아 〈在日同胞와 統一問題〉(1979)를 집필하였고 뒤이어 申幸澈은 〈在日濟州僑胞: 그 少數集團으로서의 性格과 階層構造〉(1982)를 발표하였다.

人口分野에 있어서 李昌基는 1982년에 〈濟州島の 人口成長〉과 〈濟州島の 性別・年令別 人口構成〉 등 두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社會學 專攻者가 濟州人口를 연구한 최초의 글이다. 姜相培의 濟州人口에 대한 관심은 계속 되고 있는 바 1982년에 〈濟州道人口의 性比變化에 대한 研究〉를 발표하였다.

여성분야에 있어서, 해녀사회에 대한 연구는 1980년도에 접어들면서도 계속 되는데 金榮敦의 〈出稼海女の 노래〉(1980), 稻田菊太郎의 〈濟州島潛嫂集落の 變貌〉(1981), 趙惠貞의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성별분업에 근거한 남녀평등에 관하여〉(1982)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1982년 金榮敦은 제주연구회의 모임(서울)에서 〈海女研究의 課題〉를 발표하기도 하였고 金斗熙・金榮敦 공동으로 〈海女入漁慣行權紛糾調査研究〉가 이루어졌다. 해녀 관계의 글 이외의 여성분야를 다룬 글들로는 金良順의 문교부 재정지원을 받은 〈The Systems Paradigm of Jeju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Center〉(1981)와 〈意識改革에 있어서의 女性의 役割〉(1983), 金惠淑의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두개의 글 즉 〈夫婦間의 意思決定에 관한 研究(I): 제주도 농・어촌 가정을 중심으로〉(1982)와 〈濟州市 家庭의 夫婦間 意思決定에 관한 研究: 농・어촌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1983) 등이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韓昌榮은 1960년대 말서부터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²⁰⁾

20) 그 구체적인 연구의 예들은 행정분야에서 다루도록 미루어둔다. 한가지 부연한다면 제주도연구회의 한 모임에서 金兌玄은 “제주도의 노인생활 연구”를 발표한바 있다(1982).

《濟州道誌》(1982)는 〈濟州道の 社會福祉事業〉을 다루고 있다.

근래 젊은 인류학 전공자들에 의해 제주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金俊希의 석사논문 〈감귤재배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변화: 제주도 위미리의 사례〉(1983)와 李起旭의 석사논문 〈島嶼文化의 生態學的 研究: 濟州島 隣近 K島를 중심으로〉(1984)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며 1984년 여름 현재 학위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현지조사활동 중인 사람들도 있다.²¹⁾ 李起旭은 이미 1981년 제주도연구회의 모임에서 〈생태적 적응양식으로서의 마라도의 생활유형〉을 발표한 바 있다. 濟州大學 社會學科 학생들의 제주연구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데 그 사회학 연구회의 활동으로 출판되고 있는 《濟大社會學》의 第2輯에서는 〈特輯・濟州道〉를 다루고 있다.

1980년대의 제주연구의 확산은 제주지역 평화교수협의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제2회 학술세미나에서 宋成大는 〈제주문화의 재조명: 삼무문화의 기원〉을 발표한 바 있다(1984.4).

1983년 뿌리깊은나무社에서 펴낸 《한국의 발견》(제주도 편)에는 李昌基가 집필한 〈제주도의 가족관계〉가 실려 있고, 같은 해 탐라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하의 학술회의(제2회 탐라문화학술회의)²²⁾에서 李光奎는 〈社會學的 側面〉을 발표하였다. 같은 학술회의에서 “民俗學은 원래 그 學問의 성격상 人類學・社會學・宗教學・心理學・文學 등 여러 가지 人文・社會科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家族・親族・마을의 생활 등 社會民俗은 중요한 民俗分野임에 틀림없으나, 사회학분야에서 따로 논의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論外로 삼는다”²³⁾고 함으로써 사회학과 민속학분야의 경계선에 어떤 문제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李光奎는 같은 발표에서 제주연구의 ‘논쟁’(최재석・김한구의 논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趙惠貞의 남녀

21) 예컨대 미국의 미시간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있는 김성래는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of Cheju Shamanic Healing in Urban Korea”를 박사학위논문 주제로 잡고 제주의 무속현장을 찾아 활동하고있다.

22) 이 회의자료는 뒤에 『耽羅文化』제3집(1984)에 게재되었다.

23) 玄容駿, “民俗學的 側面”,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3, p.49.

역할분담의 二分法的 사회원리의 설명을 비판하고 있는데²⁴⁾ 이 점은 앞으로 토론해 볼 거리로 남는다.

2. 연구동향과 과제

이 글은 사회학 및 인류학 분야의 제주연구 동향을 어떤 평가적 검토 없이 개관해 보려는 것이다. 이 글이 다룬 범위 속에는 인구와 여성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 대강을 요약하고 최근의 연구경향을 지적함으로써 글을 매듭짓고자 한다.

해방후 1960년대까지는 사회학, 인류학 부재의 상황 속에서 민속지적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때 泉靖一의 《濟州島》나 石宙明의 《濟州島隨筆》은 돋보이는 업적이라 할 것이다. 1970년대에 이르러 제주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제주대학에 사회학 관련학과가 설치되면서 사회학 전공자들의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崔在錫의 《濟州島의 親族組織》은 돋보이는 업적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논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趙惠貞의 박사학위논문 〈An Ethnographic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은 또 하나의 인류학적 연구의 성과로 꼽을 만하다.

1980년대에 들어서 가족·친족연구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고, 연구의 관심영역도 확대 다양화되면서 제주연구의 분위기는 보다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사회학·인류학 분야의 연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각종 조사보고서나 제주도를 다루는 출판물에 있어서는 제주도의 ‘사회’, ‘가족’ 등 사회인류학적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주연구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제주연구의 일반적인 최근의 경향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 거의 가족·친족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 도시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제현상, 도민의식, 기층문화, 해외교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의 경향은 인구나 여성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24) 李光奎, “社會學的 側面”,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 1983, p. 75.

둘째, 민족지적 연구에서 이론을 가미한 인류학·사회학적 연구로 탈바꿈하고 있다.

세째, 제주연구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 가족·친족의 연구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제주기층문화와 사회구조에 대한 견해의 차이, 제주연구 영역의 학문간 경계선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끝으로 부언해 두는 바는, 앞으로 제주연구의 학문적 목표를 의식하고 있어야 할 듯하다. 필자는 그 목표를 '제주도학'의 정립을 모색하는 데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 집적을 계속하면서도 그동안 쌓아놓은 자료와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이론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학문간의 협동연구를 적절히 조직화하고 장려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Ⅲ. 法 政

1. 政 治

濟州道民의 政治參與 및 政黨活動에 관한 研究는 그 實績이 극히 미미한 편이다. 이는 학자들이 特定地域에 국한된 연구보다는 一般論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할 뿐 아니라 불과 몇 해(1952년~1961년)를 제외하고는 地方議會가 존재하지 않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도 任命制로 되고 있으며 政治狀況이 中央舞臺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연구의 소재가 빈약하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濟州道內의 政治分野에 관한 연구는 資料整理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夫萬根의 《光復濟州30年》(1975)에서는 第2章에서 도민들의 政治參與行態와 自由黨 創黨時부터 第四共和國 초기까지의 각종 政黨의 組織 및 活動狀況을 선거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또 濟州道가 간행한 《濟州道誌(上)》(1982)에서도 第3編 第1章(政治·選舉)에서 濟州道の 政治傳統, 政黨活動, 選舉狀況을 資料中心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濟州道選舉管理委員會는 1965년에 《歷代公職者選舉實施狀況》을 간행한 이래 매 선거시마다 그 자료를 정리하여 5회나 펴 내었고 1981년에는 그 내

용을 總整理한 《濟州道選舉史》를 간행하였다.

이 資料集은 각종 선거의 내용뿐만 아니라 濟州道內 정당들의 創黨과 消滅의 浮沈狀況을 年代記의으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金榮培의 〈投票參與에 관한 考察: 濟州道를 中心으로〉(1976)가 유일한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濟州道民들의 投票行態를 분석하고 투표참여의 提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 政治分野에 포함시킬 수 있는 安保에 관한 연구는 1960年代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朴用厚의 〈歷史上에서 본 濟州島의 防衛〉(1962), 洪始煥의 〈濟州道の 後方基地論〉(1969), 高性俊의 〈東北亞情勢變動과 統一安保政策上的 濟州道の 座標〉(1978), 金恒元의 〈濟州道 住民들의 反共意識 調査研究〉(1982) 등이 그 예이다.

統一問題에 관한 연구는 道民들의 意識調査와 관련하여 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시도되고 있는데 그 예로서는 高性俊의 〈在日濟州同胞의 統一安保意識〉(1980), 金致洪의 〈濟州道 中・高等學生의 統一安保意識에 관한 調査研究〉(1983) 등 수 편이 있다.

2. 法 學

濟州道와 관련된 法에 관한 연구도 政治分野와 마찬가지로 매우 不振하여 그 실적은 수 편에 불과하다. 연구내용은 入漁慣行과 民事慣習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入漁慣行에 관한 연구가 그래도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本道 특유의 海女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四面環海인 濟州道는 예로부터 海女가 많았는데 생계를 위해 1년에 수 천명씩 본토로 出稼하여 漁業免許 없이 수산물을 채취하여 왔다. 1953년 水産業法制定당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同法 第40條 1項에 “共同漁業의 漁業權者는 從來의 慣行에 의하여 그 漁業場에서 漁業하는 자의 入漁를 거절할 수 없다”고 規定하게 되었다.

이는 비록 共同漁場을 共同漁業權으로 免許받았다고 하더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하여 오던 生業手段으로서의 漁場入漁를 막을 수 없다는 뜻으로서 入漁

慣行의 보호를 위한 制度的 裝置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地先漁協의 본도 出稼海女에 대한 入漁의 방해, 엄청난 入漁料의 강요 등으로 海女들의 권익이 침해됨에 따라 이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濟州道內에서도 部落別 海女共同漁場의 紛糾가 심화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官權까지 개입하는 實情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內外的 사정들이 入漁慣行에 대한 學問的 關心을 提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高翔龍의 〈韓國의 入漁權에 관한 研究〉(1967), 金榮敦의 〈海女の 權益侵害〉(1970), 金斗熙·金榮敦의 〈海女漁場紛糾 調查研究〉(1982), 康大元의 《海女研究》(1973) 등이 있다.

이중에서 單行本인 《海女研究》는 入漁權의 法的 성격과 濟州道 海女와 本土 地先民間의 入漁紛糾을 둘러싼 關係機關의 有權解釋, 入漁慣行權에 관련된 訴訟의 과정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日政時 海女들이 권익옹호를 위한 法的鬭爭과 抗日鬭爭의 내용까지 서술하고 있다.

한편 民事慣習에 관한 연구는 蓄妾(예: 李且淑, 〈우리나라 女性の 法的地位와 濟州道の 蓄妾慣行〉, 1968), 事後婚(예: 崔在錫, 〈濟州島의 事後婚〉, 1978), 養子制度(예: 崔在錫, 〈濟州島의 養子制度〉, 1978)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裴慶淑은 〈濟州道の 民事慣習에 관한 研究〉(1984)에서 濟州道の 家族慣習 가운데서 오랫동안 전래된 두 가지 특징이 家族主義와 分擔制祭祀慣習이라고 지적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다음 이러한 慣習을 理想的으로 다듬는다면 그것을 토대로 現行 家族法上的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제주도와 관련된 법적 연구로는 民事法分野에 金燮薰의 〈멧쇠(배넛소 委託牛) 契約의 法的 性格에 관한 研究〉(1965)가 있고 刑事法分野로는 許承喆의 〈刑事法學的 觀點에서 본 本道の 犯罪論〉(1963), 金秀吉의 〈濟州道の 犯罪現狀〉(1975) 등이 있으며 제주도민의 法意識에 관한 調查研究도 1편이 있다.

3. 行 政

제주도의 地域行政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고 하겠다. 제주도개발에 대한 정부의 政策的 關心과 도민들의 開發欲求가 提高됨에 따라 주로 一般論에 치중했던 연구자들의 視角이 地域問題로 전환되게 되었다.

또 《제주도》誌를 비롯한 각종 行政誌가 창간됨에 따라 發表誌面이 크게 充溢으로써 地域行政分野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이 분야의 연구는 양적으로 볼 때 余他の 社會科學分野를 압도하고 있으며 質的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研究物들이 적지 않다.

1) 年代別 研究概觀

1960 년대의 地域行政에 관한 연구의 주된 흐름은 당초에는 觀光開發에 있어서 행정의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느냐에 두어졌으나 1964 년에 濟州道建設綜合計劃(案)이 수립됨을 계기로 하여 濟州道開發을 綜合的으로 다루는 경향으로 차츰 移行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초로 제기된 것이 自由港(地帶)에 대한 연구인데 《제주도》誌 제 16 호(1964.9)는 이에 대한 贊反을 다룬 6편의 研究物을 게재하고 있다.

그 후 제주도가 特定地域으로 指定됨에 따라 特定地域建設計劃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각종 보고서와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1967 년 9 월에는 제주도와 國際觀光公社가 공동 주최한 觀光開發세미나가 열려 觀光開發의 方向과 추진방법이 제시되었다.

한편 1960 년대 중반부터는 農業, 畜產, 水產 등 1次產業에 대한 開發計劃이 수립되고 집행됨을 계기로 하여 產業行政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農業分野에서는 農地利用度 提高를 중심으로 한 農政方向이 제시되기 시작했고 1968 년 中山間開發計劃이 수립됨을 前後해서는 中山間의 農業基盤 造成對策에 대한 연구결과가 적지 않게 나왔다.

畜產分野는 畜政의 基本方向, 家畜品種改良의 필요성, 牧野改良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水產分野는 韓・日國交正常화가 실현된 직후부터 沿近海漁業 開發의 필요성 등 水產行政의 基本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960 년대의 地域行政研究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비록 行政

公務員들에 의해서이긴 했지만 行政區域의 改編問題가 활발히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제주도》誌 제 31 호(1967.11)는 이에 대한 특집을 마련하고 6 편의 글을 싣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現行 郡行政區域은 經濟圈과 生活圈이 일치되지 않아 地域開發이나 住民生活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南・北郡을 東・西郡으로 개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연구물 중에는 제주도의 綜合開發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道制를 폐지하고 特別行政機關인 開發廳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관심을 끌었다.

60 년대에 地域行政에 관한 연구가 이같이 본격화된 데에는 각종 行政誌들도 큰 기여를 했다. 1962년에 제주도가 《제주도》를 창간한 것을 필두로 市・郡과 濟州道教育委員會에서 《북제주》(1966), 《제주시》・《남제주》・《교육제주》(이상 1967)를 각각 발간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誌面을 제공하고 研究意欲을 북돋아 주었다. 한편 1969년에는 濟州年鑑社에 의해 《濟州年鑑》이 발간됨으로써 地域行政研究者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1970 년대에 들어와서 地域行政의 연구는 60 년대보다 그 領域이 확대되고 細分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深度도 더욱 깊어졌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종래까지 概括的이며 序說的이던 연구태도가 지양되어 연구주제의 범위를 보다 좁히고 깊이 있게 다루려는 태도가 정립되기 시작했으며 研究者의 수도 道內・外的으로 급속히 증가되었다.

이 당시 綜合開發에 관한 연구는 그 내용이 주로 ①開發을 위한 行政의 役割, ②開發에의 道民參與方案, ③觀光開發과 道民所得의 연계방안 등에 두어지고 있다.

行政當局의 綜合開發計劃을 수립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감에 따라 《제주도》誌는 제 46 호(1970.11)에서 “濟州道綜合開發計劃과 展望”이라는 특집을 마련, 計劃의 方向과 開發戰略을 제시함으로써 地域行政에 대한 研究方向을 先導했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그후 수 년간 계속되다가 1973년에 〈濟州道觀光綜合開發計劃〉이 確定됨을 고비로하여 이 계획의 효율적 推進方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이러한 연구와 병행하여 環境保全에 관한 行政的 研究에도 관심이 제기되었는데 이 당시 環境行政의 연구의 重點은 天惠의 自然景觀을 파괴・훼손・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개발과 보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두어졌다. 또 새마을運動이 추진되면서부터는 이 운동의 효율화를 통해 住民의 所得增大와 精神啓發을 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어떻게 機能해야 하느냐 하는 데도 관심을 나타나게 되었다.

1970 년대의 研究方法와 傾向은 60 년대에 비해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官・學協同的인 연구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제주도를 비롯한 각급 行政機關의 의뢰로 대학에서 여러가지 調査・研究이 이루어졌고 評價教授團 및 각급 諮問委員會에서도 行政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활발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施策樹立에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주도의 의뢰로 수행된 行政에 관한 대표적인 調査報告로는 1979 년 濟州大學統一安保研究所의 〈濟州道民의 意識構造 調査研究〉를 들 수 있다. 이 조사는 道民 1,020 명을 대상으로 社會・文化, 一般行政, 地域開發, 國家意識, 統一安保意識 등 5 개 分野를 조사한 것인데 328 면에 걸친 調査內容은 물론이고 그 方法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것이었다고 하겠다.

조사대상 가운데서 行政部門을 보면 一般行政分野에서는 行政施策, 行政參與, 行政支援, 公務員에 대한 認識度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地域開發分野에서는 地域社會開發, 觀光開發, 農業開發에 대한 要因 및 效果, 그리고 次後의 開發方向과 行政의 역할에 대한 道民들의 의견을 科學的 方法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한편 評價教授團 및 道政諮問委員會에 의한 《道政研究 및 評價報告書》는 1971 년~1980 년까지 8 회나 발간되었는데 주로 觀光行政과 産業行政에 대한 評價와 改善方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는 地域行政에 대한 共同調査・共同研究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地域行政에 대한 綜合的 接近의 필요성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겠으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데는 濟州大學에 설립된 濟州道問題研究所, 觀光開發研究所, 統一安保研究所 등 각종 研究所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세째는 學位論文 가운데 地域行政을 소재로 다룬 것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傾向은 1970 년대 중반기부터 碩士學位論文에서 보여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綜合開發에 있어서의 行政의 役割, ②觀光開發, ③ 産業開發은 물론이고 消防行政, 民防衛行政, 老人福祉行政 등 매우 다양하다.

또 1970년대에는 行政에 관한 몇 종의 資料集이 나와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耽羅實錄》(韓致文, 韓進文化社, 1973)과 《光復濟州30年》(夫萬根, 文潮社, 1975), 《濟州年鑑》(濟州年鑑社, 1976, 1979) 등이 그것이다.

한편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地域行政에 대한 연구가 더욱 深化되었는데 주된 관심분야는 역시 綜合開發分野였다고 하겠다. 行政當局은 濟州觀光綜合開發計劃이 1982년에 끝나게 되자 特定地域濟州道綜合開發計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地域行政 研究者들은 觀光綜合開發計劃의 추진 성과에 대한 反省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새 計劃의 합리적인 基本方向을 모색하는 연구물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邑・面單位の 綜合開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傾向의 研究類型은 크게 ①開發理念 및 目標의 재정립, ②地域間 均衡發展, ③土地利用政策의 合理化, ④環境保全, ⑤道民參與提高方案 등에 두어지고 있다.

綜合開發에 대한 연구는 1983년 7월 「濟州道 地域開發을 위한 國際學術會議」가 제주도청에서 열림으로써 절정을 이루었다. 이 學術會議는 特定地域濟州道綜合開發計劃을 수립하기 위한 理論的 基礎를 얻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수의 國內外 學者가 참석해 10여편의 主題論文 發表가 있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관심이 약해졌던 産業政策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예의 하나가 1984년 10월에 “濟州道産業의 現況과 展望”을 主題로 하여 개최된 世界平和教授協議會 濟州地域 제3회 學術세미나이다.

1980년대에 있어서 또 하나의 劃期的인 사실은 1982년에 《濟州道誌》가 발간된 일이다. 이 책은 上・下 양권에 총 1,884面に 이르는 방대한 分量으로서 비단 行政分野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전반적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集大成하고 있다. 行政에 관련된 內容을 보면 上卷에는 行政史, 道政概況, 一般行政, 새마을行政, 保健・社會行政, 僑民行政을 다루고 있고 下卷에는 産業行政, 觀光行政, 文化行政, 計劃行政의 內容을 담고 있다.

2) 分野別 研究概観

(1) 一般行政

一般行政分野의 연구는 行政區域 改編問題와 道政評價를 제외하고는 부진한 편이다. 이는 行政管理方法이 全國的으로 共通原則에 입각하고 있어 地方自治 團體別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濟州邑이 1955년에 市로 昇格됨을 계기로 北濟州郡은 濟州市를 가운데 두고 東西로 완전히 분리되어 飛地化함으로써 여러가지 不合理性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共同體意識을 저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資源의 確保,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 및 維持・管理面에서도 비능률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郡區域 改編問題가 1950년대 후반기부터 道民들 간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 1957년에는 東・西・南郡 등 3郡案이 제기되었고 1960년대 초에는 다시 東・西 二郡案이 제시되었으나 理論的인 연구를 거쳐 주장된 것들은 아니었다.

郡區域改編에 대한 理論的인 研究는 1967년에야 이루어졌다. 이 당시 內務部는 行政區域改編을 주제로 한 地方行政研修大會를 열었는데 이를 계기로 道・市・郡 幹部公務員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이다. 연구결과는 《제주도》제 31호(1967.11)에 실렸는데 그 내용은 〈資源 및 所得圈地 中心의 區域改編〉(姜京周), 〈地形 및 産業構造上 불가피한 問題〉(金在治), 〈世界的 示範事業으로 推進할 만한 일〉(吳文生), 〈社會構造改革을 위한 艱요한 課題〉(金潤琪), 〈集中投資를 받을 수 있는 區域調整〉(玄仁哲), 〈實質的인 自治行政을 위한 措置〉(許益浩) 등 6편이다.

이들 내용은 한결같이 現行 郡行政區域은 經濟圈과 生活圈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東・西 二郡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面區域도 개편, 舊左面과 涯月面을 分面하고 中山間地帶의 부락을 묶어 6개 面을 新設해야 하며 綜合開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道制를 폐지하고 開發廳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도 있다.

開發廳의 설치에 대한 주장은 이미 1964년에 洪淳晩의 〈濟州道 開發의 問

題點〉 등 몇몇 研究者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郡區域改編에 관한 연구는 그 이후 選舉區의 조정을 비롯한 미묘한 정치적 이유 등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道政에 대한 평가는 주로 特定制度나 年代의 道政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向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研究物로는 金光澤의 〈1970 年度 道政 一般行政評價〉, 愼久範의 〈70 年度の 得失과 道政方向〉, 趙文富의 〈未來指向的 基盤構築: 70 年代 上半期 道政決算〉(1975) 등이 있다.

(2) 開發行政

가. 綜合開發

제주도의 종합개발에 관한 연구는 觀光開發의 연구와 함께 가장 關心이 높고 活性化된 분야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1964 년 濟州道綜合建設計劃(案)이 수립됨을 계기로 하여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綜合開發의 필요성, 國土開發과 地域開發과의 관계, 綜合開發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관심이 쏠렸다. 洪淳晩의 〈濟州道開發의 問題點〉(1964), 〈後進地域開發과 濟州道の 位置〉(1965), 〈濟州道開發의 先行課題〉(1966)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또 開發의 推進方法에 있어서는 特別法 制定, 開發廳의 設置 등 주로 제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예로 趙文富·李京男은 〈濟州道開發에 관한 制度的 研究〉(1968)에서 綜合開發의 성패는 民間投資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냐에 달렸으므로 民間投資의 誘置를 위해서는 租稅政策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租稅特別措置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주도의 自由貿易港에 관한 연구 역시 綜合建設計劃(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政府가 自由港의 基本構想을 밝힘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주도》誌는 제 16 호(1964.9)에서 특집으로 당시 濟州道知事였던 康祐俊의 〈내가 提示하는 自由化問題〉를 비롯하여 洪貞杓의 〈自由化 좋으나 治安問題 우려〉, 李泰珍의 〈全域自由化를 主張한다〉, 韓致文의 〈나는 自由化를 杞憂한다〉, 夫宗休의 〈基礎構造 갖춰 自由化하자〉, 夫鍾哲의 〈좀 더 愼重히 研究해야〉, 姜應五의 〈受入態勢의 確立부터〉 등 7 편의 연구물을 실고 있다.

제목이 시사해 주는 바와 같이 1 편을 제외하고는 自由港에 대해서 원칙적인

찬성을 하면서도 治安問題, 空港 및 항만시설, 地域經濟의 發展 등 受容態勢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慎重論을 펴고 있다.

1970 년대에 들어와서는 濟州道觀光綜合開發計劃을 수립하기 위한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제주도》誌 제 46 호(1970.11)는 “濟州道綜合開發計劃과 展望”을 特輯으로 꾸며 姜景禧의 〈濟州道綜合開發의 方向〉, 車耕權의 〈濟州道開發의 課題〉, 玄致邦의 〈將來成長과 長期計劃〉 등 6 편을 게재하고 있는데 綜合開發은 觀光을 주축으로 하는 產業間 均衡發展과 田園化에 두어져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觀光綜合開發計劃이 추진되기 시작한 1973 년부터는 觀光과他產業間의 연계발전 문제, 道民參與 方案, 開發推進體로서의 행정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의 예로는 金武昌의 〈濟州地域開發과 行政의 役割에 관한 研究〉(1975), 高南旭의 〈濟州道觀光開發과 地域開發과의 연계방안〉(1979), 韓昌榮의 〈要請되는 開發主體로서의 役割〉(1975) 등을 들 수 있다.

1970 년대 후반부터는 觀光綜合開發計劃의 추진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補充함으로써 새로운 推進方向을 모색하려는 연구와 개발에 따른 住民意識 및 行態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高忠錫의 〈濟州道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實驗의 모델에 관한 研究〉(1978), 〈田園都市化를 위한 濟州道開發의 方向〉(1980), 高南旭의 〈住民의 意識構造面에서 본 地域開發行態에 관한 調查研究〉(1979), 濟州大學統一安保研究所의 〈濟州道民의 意識構造 調查研究〉(1979) 등이 그 예들이다.

綜合開發과 관련된 土地利用에 관한 연구는 1960 년대에는 주로 利用實態에 관한 調查報告의 性格을 띠었던 것이(예: 朴魯植, 〈濟州道土地利用 調查報告〉, 1967) 70 년대에 와서는 利用을 高度化하기 위한 方向으로 전환되었고(예: 高南旭, 〈濟州圈域開發의 方向設定에 관한 研究〉, 1975. 渡邊長義, 〈濟州道 土地利用改善에 관한 將來性〉, 1978) 80 년대에는 利用과 規制의 調和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예: 夫萬根, 〈濟州道開發과 土地利用政策〉, 1980).

觀光綜合開發計劃의 추진성과와 방법에 대한 반성은 80 년대에 들어와 더욱 활발해졌는데, 그 경향을 보면 첫째로, 앞으로의 綜合開發計劃은 종전의 開發理念을 탈피하고 開發目標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로, 종합개발은

地域間 均衡發展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方向의 戰略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며, 세째는, 開發主體로서 주민의 積極적 參與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의 예로는 金太永의 〈濟州道觀光綜合開發計劃에 대한 再考〉(1982), 猪股一夫의 〈新開發理論からみた國土開發の指標: 濟州開發の指標を探索〉(1981) 등이 있고, 둘째의 예로는 金泰保의 〈濟州圈開發을 위한 地域圈의 設定과 開發戰略에 관한 研究〉(1983)를 들 수 있으며, 세째의 예로는 韓昌榮의 〈濟州道綜合開發 方向 試論〉(1982) 등이 있다.

한편 1970년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自由港(地帶)에 관한 연구가 特定地域濟州道綜合開發計劃이 준비되기 시작한 1982년에 金世源의〈濟州道開發을 위한 提言〉에서 다시 提起되었고 李廷植의 〈複合機能 自由貿易地帶 開發을 위한 새로운 接近〉(1983), 朴秀永의 〈濟州地域 綜合開發計劃〉(1983)등에 의하여 거듭되었다.

그러나 앞의 두 편의 연구는 自由貿易地帶設定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對外的 要件으로서 國際情勢의 안정은 물론이고 ①대규모 空港 및 항만건설, ②현대적 通信施設, ③英語구사가 가능한 專門職 從事者の 확보, ④海外投資家를 위한 特惠制度의 제공 등 對內的 先行條件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綜合開發에 관한 연구는 既述한 바와 같이 1983년 7월 「濟州道地域開發을 위한 國際學術會議」가 열림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었는데 여기에서는 아키라・곤노의 〈日本の 經驗에 비추어 및 濟州地域 開發에 대한 考察〉, 盧貞鉉의 〈Strategic Importance of Cheju Island in the Context of Changing Development Goals〉 등 國內外 학자의 1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같이 綜合開發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매우 활발하고 지금까지의 開發政策에 대한 반성도 제기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개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理論的인 理念定立이 안 되고 있고 道民參與의 방향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 觀光開發

觀光開發에 관한 연구는 濟州道 行政研究의 主流를 이루어 왔던 分野로서 政府가 1962년에 觀光事業振興計劃에 따라 제주도를 觀光地區로 선정함을 계기

로 다른 분야보다도 일찍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 1966년부터는 觀光開發이 道政主要施策으로 등장하게 되자 研究者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고 1967년부터는 대규모의 세미나와 學術會議가 빈번히 열려 많은 논문들이 발표됨을 계기로 하여 연구의 질적 水準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연구자들의 觀光開發에 대한 行政的 接近의 주요 관점은 1960년대는 주로 所得增大爲主의 開發優先主義가 강조되었으나 70년대부터는 開發과 環境保全의 併行推進을 위한 방향제시에 큰 관심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수십 편에 이르고 있는데 그 내용도 ①觀光資源開發, ②觀光施設 擴充, ③觀光宣傳, ④觀光과 地域開發과의 연계 방안, ⑤觀光事業에 대한 行政指導方案 등 실로 다양하다.

다. 都市開發

都市開發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綜合開發이나 觀光開發에 비해 연구가 부진한 분야이다. 연구의 방향은 당초에는 濟州市의 都市計劃 및 開發問題에 局限되다가(예: 金仁濟, 〈濟州市 都市計劃政策에 관한 諸問題〉, 1969. 양행수, 〈濟州市 都市開發의 問題點〉, 1971) 1970년대 말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據點都市 開發問題, 觀光과 都市開發의 연계문제, 小都邑 開發도 연구의 대상으로 되었다.

연구실적을 보면 據點都市開發에는 金泰保의 〈都市開發의 基本方向〉(1983), 金世奉의 〈濟州市 據點都市 開發의 必要性和 그 實態〉(1981) 등이 있고 觀光과 都市開發의 연계 방안에는 宋成太의 〈觀光地域의 都市化研究〉(1980), 玄仁哲의 〈觀光과 都市開發〉(1982)이 있다. 한편 小都邑開發에 관한 연구로는 韓昌榮·高南旭 外의 〈濟州地域 小都邑機能 綜合計劃樹立에 관한 研究〉(1977)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의 주된 내용을 보면 成長據點都市로서의 濟州市의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①都市의 經濟基盤 강화, ②都市의 下部構造 확충, ③都市의 自足能力 伸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小都邑의 경우는 農村住民의 諸般活動의 중심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小都邑 開發戰略에 있어서 주변 農村地域과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무시된 채 小都邑 자체의 都市性 增大에만 역점이 두어짐으로써 地域發展의 原動力인 刷新의 농촌에의 파급을 半減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農村開發을 위한 小都邑의 機能強化 방향은 첫째, 교통망의 擴充 및 既存交通路의 개선, 둘째, 地場産業의 育成, 세째, 農村住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基本需要를 1차적으로 充足시킬 수 있는 都市的 施設의 확충에 두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産業行政

産業行政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물은 아주 적은 편이다. 經濟開發 5個年計劃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産業發展方向을 전망해 본 研究物로는 李重憲의 〈濟州道の 産業〉(1963)과 李辰煥의 〈濟州道 近代化의 展望〉(1966)이 있으며 濟州道 中山間開發計劃이 수립된 이후에는 姜景璠의 〈中山間開發을 위한 나의 提案〉 1·2·3 (1971)에서 中山間開發의 基本方向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후 産業行政 일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가 1984년에 趙文富의 〈濟州道の 産業政策〉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본도 1차산업의 對策方向을 構造的 多元化, 輸出産業育成에 두어야 하며 종전까지의 增分主義에서 탈피, ZBS(Zero Base System)의 도입을 통해 산업정책의 全面的인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農業行政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중반기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크게 ①農業行政의 基本方向, ②農耕地利用度 제고, ③農業所得 증대방안, ④觀光과 農業의 연계방안, ⑤中山間개간 등에 두어지고 있다.

農業行政의 基本方向에 대한 연구는 주로 行政公務員에 의한 연구가 많은데 (예: 南仁熙, 〈本道 農業開發에 관한 小考〉, 1965. 尹漢炳, 〈濟州道の 앞으로의 農政方向, 1979) 協業化, 新農業資源의 개발, 生産力 향상, 流通處理 改善方案 등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한편 農耕地利用度 제고에 관해서는 遊閑地의 활용, 暗埋葬團束 등과 결부하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예: 姜尙進〈暗埋葬團束과 본도의 耕地面積〉, 1964. 金澄玉, 〈農耕地의 利用度 제고〉, 1976). 또 농업과 觀光의 연계발전에 관해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간헐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예: 姜景璠, 〈農業發展과 農-觀構造의 形成〉, 1983) 아직活性化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中山間開發을 통한 農業與件 改善에 대한 연구로

는 金澄玉의 〈高地帶開發하여 山地農業 장려〉(1970) 등이 있다.

畜産行政에 관한 연구는 1960 년대초 政府의 畜産振興施策에 힘입어 家畜의 品種改良을 위한 人工受精이 실시되고 牧野改良이 본격화됨에 따라 活性化되기 시작, 産業分野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의 내용은 주로 ①畜産行政의 基本方向(예: 金潤琪, 〈濟州道 畜産開發에 관한 研究〉, 1976. 鄭昌朝, 〈畜産開發을 위한 나의 提言〉, 1979), ②牧野改良(예: 康完柱, 〈濟州道の 草地造成〉, 1974), ③畜産所得 増大(예: 張英壽, 〈零細農家を 기초로 한 畜産振興과 所得増大 방안〉, 1982)에 두어졌는데 畜産行政의 기본 방향으로 家畜増殖, 草地造成, 販路改善, 部落共同牧場운영 합리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水産行政에 관한 연구는 본도가 四面環海이면서도 다른 분야보다 늦어 韓・日國交 정상화 이후에야 沿近海漁業 開發의 필요성 등 水産行政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예: 魚容柱, 〈韓・日國交 正常화와 본도 水産業의 展望〉, 1965. 김창현, 〈水産을 主眼으로 본 濟州道開發〉, 1970. 김성만, 〈濟州道 沿近海漁業의 開拓方向〉, 1971).

그후 濟州道水産開發 3 個年計劃이 수립된 1970 년대부터는 內水面 開發과 養殖事業, 漁業構造 및 環境의 개선에도 視角이 돌려지고 있으나 行政的 측면의 활발한 연구활동은 없는 편이다.

(4) 其他

가. 保健・社會行政

제주도의 保健・社會行政에 관한 연구는 주로 保健, 衛生, 老人福祉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별로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이는 保健・社會行政 자체가 지역에 따른 특수성이 적다는 데서도 연유하지만 도민들의 관심이 아직까지도 物量的인 開發面에 치중되고 社會福祉面에는 소홀한 데도 큰 이유가 있다.

保健・衛生分野의 연구는 1960 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新生活運動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고 老人問題는 주로 1970 년대부터 韓昌榮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1976 년에 〈老人問題에 관한 研究〉라는 論文을 낸 이래 《濟州道老人論巧》(1982), 《敬老思想과 老人福祉》(1983)를 단행본으로 내는 등 老人福祉를 위한 行政의 접근에 집념을 보여주고 있다.

나. 財務行政

地方財政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말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예: 李京男, <本道 地方財政의 適正化問題>, 1969) 1970년대 들어 각종 開發事業 및 福祉施策이 추진됨에 따라 地方財政의 自主性向上 방안, 地方公企業의 育成方案(예: 高承禧, <地方公營企業의 育成開發論>, 1973. 夫萬根 <濟州道 地方財政의 自主性向上 방안>, 1980)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제주도 地方稅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감귤을류농지세의 課徵方法 개선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尹良洙의 <濟州道內의 감귤을류농지세 課徵實態와 問題點>(1982), 이성술의 <감귤을류농지세의 臺帳課稅 方案>(1982) 등이 그 예이다.

다. 새마을行政

1972년부터 새마을運動이 精神啓發, 環境改善, 所得増大의 세 분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새마을行政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분야에 대한 研究方向은 크게 ① 새마을運動의 基本方向 모색(예: 金光澤, <새마을運動의 方向과 問題點>, 1972), ② 새마을運動의 效率의 추진을 위한 行政의 役割(趙文富·韓昌榮, <濟州道 새마을運動과 行政의 役割에 관한 연구>, 1974), ③ 새마을運動과 所得増大 연계방안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라. 文化行政

1960년대 중반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수행되어 온 분야이다. 본도 固有文化의 宣揚을 중심으로 한 文化行政의 基本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며 觀光開發이 본격화되면서는 觀光開發事業과 文化財保護와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모아졌다.

前者の 예로는 玄容駿의 <本道 固有文化의 保存 및 宣揚策>(1966), 설창수의 <濟州道文化와 文化行政의 方向>(1968)을 들 수 있고 後者の 예로는 洪貞祐의 <文化財의 保護對策>(1972), 宋錫範의 <本道 文化財의 保存問題>(1964) 등이 있다. 한편 漢拏文化祭가 全道民이 참여하는 文化祝祭로서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이 행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改善方向을 모색하는 연구결과도 해마다 적지 않게 발표되고 있다.

마. 僑民行政

현재 日本에는 우리나라 僑胞가 60 만명 이상이 居住하고 있으며 이중 濟州出身이 20 만명 정도로 推定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은 韓·日國交 正常化 이전부터 제기되어 韓致文의 〈在日僑胞의 財産搬入문제〉(1962), 金榮寬의 〈在日僑胞에 대한 나의 信念〉(1964), 金泰泰의 〈在日僑胞와의 紐帶問題〉(1964) 등이 발표되었다.

한편 僑民들이 鄉土開發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1972 년 제주도 僑民係가 설치되면서부터는 僑民들의 鄉土開發에의 적극 參與方案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康昌洙의 〈濟州道の 僑民行政〉(1972), 高永銀의 〈在日僑胞의 鄉土開發 參與〉(1974), 洪淳晩의 〈在日僑胞와 鄉土와의 架橋〉(1974) 등이 그 예들이다.

Ⅳ. 산 업 경 제

1960 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제주도 경제시스템은 물물교환 경제시스템을 간신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낙후한 상태이어서 경제에 대한 연구가 나올 수 없었고 또한 경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수준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60 년대에 第1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이 實行됨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經濟開發과 經濟의 構造的인 문제점에 대한 認識이 提高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물론 초기의 경제에 관한 연구는 概括的인 형태를 띠었고, 문제점의 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70 년대 이후에는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한 연구도 적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경제에 관한 研究狀況을 概觀하고 앞으로의 研究方向을 제시하는 데 있다. 앞으로의 논의는 濟州道 開發에 관한 全般的 研究를 먼저 다루고, 그 이후에는 各部門別로 연구상황을 개관하며, 결론부분에서는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1. 地域經濟開發에 관한 綜合的 研究

제주도 地域經濟開發에 관한 연구는 제 1 차 經濟開發計劃의 시행과 더불어 동시에 병행되고 있다. 1960년대초의 地域經濟에 관한 연구는 우선 제주도의 潛在的 資源의 현황과 더불어 그 開發可能性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金漢駿(〈本道 產業開發에 대한 管見〉, 《제주도》, 1962)은 農水產 資源의 상황 및 잠재자원을 살펴보고, 이런 資源의 開發을 위해서는 조림·사방사업, 도로·항만사업 및 급수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유흥지개간, 농지개량, 축산진흥, 수산진흥, 상공분야진흥 및 특용작물재배장려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60년대말에는 주요관심사가 濟州道 地域經濟成長의 推進力과 開拓團地造成에 쏠리게 된다. 예컨대 李京男(〈本道 地域經濟成長의 內面과 外面〉, 《제대학보》, 1968)은 本道 經濟成長의 推進力이 무엇이며, 本道 農業의 構造的 문제점에 대한 改善策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며, 金秉株(〈濟州市 開拓團地 造成事業〉, 《제주시》, 1969)와 許京洪(〈示範團地造成의 效果와 展望〉, 《남제주》, 1968)은 地域經濟開發方式의 일환으로서의 開拓團地事業의 목적, 필요성 및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사업의 효과와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高度의 經濟成長時代를 구가함에 따라 研究分野도 1960년대의 經濟開發成果가 1970년대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本道 地域經濟成長을 지속시키기 위한 政策的 提案提示 및 特化產業의 육성 등으로 옮겨간다. 예컨대 玄鶴淳(〈경제구조면에서 본 개발의 전망〉, 《제주도》, 1970)은 產業構造, 就業構造 및 勞動生産性を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으며, 李君普(〈道民 經濟持續成長 뒷받침〉, 《제주도》, 1975)는 本道 經濟成長의 持續化를 위해서는 農業의 基盤造成과 農業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아울러 商工과 行政分野에서의 側面的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高南旭(〈濟州地域의 開發方向 設定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975)은 濟州地域의 產業間의 부존자원을 분석·파악하여 이들 資源이 產業部門間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地域經濟成長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는 또한 주민의

의식행태조사를 통하여 그동안의 제주지역개발 성과에 대한 주민의 반응을 측정하여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방향설정에 관한 계획·기본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주민意識 構造面에서 본 地域開發行態에 관한 조사 연구》, 《제대논문집》, 1979).

1980년대 地域經濟開發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金泰保의 〈濟州地域經濟의 構造的 特性과 產業開發戰略에 대한 研究〉(《제대논문집》, 1984) 하나뿐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20년간의 濟州地域開發狀況을 알아보기 위하여 產業構造, 地方財政 및 投資構造, 輸出構造, 資源構造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도의 지역경제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한 產業開發의 基本戰略으로 觀光開發, 農業開發, 水產業開發과 地域工業開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濟州地域開發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중앙의 經濟開發 5 個年計劃과 연관되어서 제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開發計劃의 수립과 추진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地域의 특성에 적합한 開發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2. 農水産業에 관한 研究

1) 農業一般

60년대의 농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에 開發初期段階에 있는 제주도 농업의 現況分析과 集中育成分野의 選定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본도 農業의 지역적 특성과 이에 적합한 農業部門의 選定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열대농산물과 특용작물의 선정이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또한 초기 개발단계에서의 본도 農業의 구조적 문제점들도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陸鍾隆(〈濟州道 農業開發에 대한 所見〉, 《제주도》, 1966)과 玄一浩(〈營農의 構造改善策〉, 《제주도》, 1967)는 農業經營의 社會的・自然的 조건과 農業의 構造的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農業의 構造改善策을 제시하고 있으며, 南仁熙(〈本道 農業開發에 대한 小考〉, 《제주도》, 1965)와 金貴濟(〈濟州道 農業의 展望과 問題點〉, 《제주도》, 1966)는 濟州道の 農業發展을 위해서 원예, 감귤, 고구마, 유채, 양송이 같은 特用作物과 畜産業의 開發育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特用作物(감귤은 다음에 논의)에 관한 1960 년대의 논의로는 고구마와 파인애플에 관한 것이 있다. 예컨대 邊昇奎(〈제주도 포도당공장준공과 本道 고구마 處理展望〉, 《제주도》, 1968)는 고구마 재배상의 제주도 지역적 여건과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것을 다루면서, 판매가 보장이 된다면 고구마는 高所得源의 특용 작물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 보았다. 또한 姜武鍾(〈濟州道の 파인애플 재배〉, 《제주도》, 1968)은 파인애플재배의 필요성, 시험재배의 성과 및 파인애플 재배법, 수익전망을 논의하면서, 파인애플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재배한다면 본도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에는 주로 개발초기단계의 제주도 농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농업육성을 위한 특용작물의 선정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면, 70년대에는 이것에서 더욱 진전하여 구체적인 육성방안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임문호(〈濟州市 近郊農業의 育成策〉, 《제주시》, 1971)는 영농의 기계화와 中山間地帶의 用水開發 등을 다루면서 近郊農業의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姜景璠(〈主產地形成의 經濟的 意義〉, 《제주도》, 1974)은 주산지리를 형성함으로써 농업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형옥(〈農耕地의 利用度提高〉, 《제주도》, 1976)은 제주도의 지역적·환경적 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80년대에는 지난 20년간의 농업개발정책에 의해 농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과거의 自給自足的 經濟體制가 붕괴되고 내륙경제와의 연관성이 깊어지게 되었다. 이런 農業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연구분야도 특용작물의 선정 및 생산문제에서 農業生産物의 需給不均衡問題로 이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예컨대 박양문·강승진(〈濟州道 食糧需給 現況과 展望〉, 《제대논문집》, 1984)은 주요작물의 栽培面積 生産量에 관한 과거의 변화 추세를 개관하고, 食糧作物의 増産可能性과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하고 있다.

2) 柑 橘

감귤은 고소득특용작물로서 제주도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며, 특히 60년대말부터 70년대말까지 제주도민의 1인당 GNP가 전국에서 상위그룹에 속하게 된 것도 바로 감귤의 증산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제에 관한 연구중에서 상당부분이 감귤에 대한 연구로 집중하게 된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60년대에는 감귤수요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 당시에는 감귤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농민들의 소득증대 방법중 최선의 방법은 감귤증산에 있었다. 특히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소득증대의 결과로 전국적인 감귤소비수요가 증대하였고, 또한 관광개발에 따른 감귤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감귤증산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의 결과로 60년대의 감귤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감귤증산을 위한 品種改良, 主產地造成 増産의 具體的 技術 등이 많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姜基完(〈柑橘増産의 必要性和 그 展望〉, 《제주도》, 1967), 許京洪(〈감귤주산단지조성과 그 전망〉, 《남제주》, 1968), 白子勳(〈柑橘의 品種改良과 整枝剪定〉, 《제주도》, 1968) 등은 감귤증산의 필요성, 방풍문제, 묘목, 품종개량, 整枝剪定, 주산지조성 등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한편 申寬厚(〈柑橘流通處理改善과 市場性〉, 《제주도》, 1968)는 品質向上, 선과, 저장관리, 가공, 판매방법의 개선 등을 다루면서 流通問題를 고려하고 있음은 특이하다.

1960년대에 걸친 감귤증산정책은 농민의 所得増大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너무 増産一邊倒 정책에 기인하여 유통문제가 너무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70년대에는 감귤증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공급과잉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流通合理化政策이 제시되고 있다. 柑橘流通合理化政策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流通專營機構의 育成, 系統販賣의 組織力強化, 貯藏 및 加工技術의 擴充, 輸送施設의 擴充 및 근대화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流通組織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감귤의 상품가치가 하락하고 농민에게 귀속될 소득부분도 작아짐으로써 감귤이 농민의 소득원으로서의 의의는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유통문제에 대해서 玄鶴淳(〈柑橘流通政策의 改善方案에 관한 調查研究〉, 《경영논집》, 1974)은 감귤의 생산·소비동향, 유통형태 및 가격동향을 분석하고, 流通過程의 문제로는 系統販賣의 부진, 流通施設의 미비, 包裝材料開發의 부진 및 流通費用의 過多 등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외에 濟州開發問題研究所에서 발표된 徐瑛杓, 金文珪, 許仁玉,

文銖昌씨 등의 연구(《開發濟州》, 1975년 10월호)도 出荷, 流通, 貯藏 및 生産過剩에 따른 收益性保障問題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玉正權(〈감귤의 機械選果에 의한 商品價向上〉, 《개발제주》, 1977)은 감귤의 상품가향상을 위한 기계선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감귤수요 그 자체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잉생산에 따른 소비촉진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감귤과 代替財의 관계에 있는 기타 다른 生果의 생산 및 소비동향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80년대의 대표적인 연구로서 金昌中의 논문(〈柑橘의 需要分析模型 設定과 活用에 관한 研究〉, 《경영논집》, 1984)은 1인당 국민소득, 代替財의 價格, 代替財의 생산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이런 변수들의 변동에 감귤수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하였다.

3) 畜産業

제주도의 중산간을 개발한다면 축산면에서 매우 유리한 環境的 與件을 가지고 있으나, 제주도의 畜産은 동력용과 自給自足の 目的 또는 소규모적 副業형태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영세적 규모이다. 특히 선진국 형태의 대규모적 낙농·목축업은 제주도의 경우에 극소수에 불과한 형편이기 때문에 企業農的 畜産業 육성의 길은 아직 요원하다고 하겠다.

1960년대 畜産業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제주도 축산업의 현황, 문제점 및 육성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제주도 축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金瑞燕(〈濟州道の 畜産〉, 《제주도》, 1962)이 濟州畜産의 과거와 현재상황을 설명하고, 제주도 家畜改良増殖 5個年計劃을 서술하고 있고, 畜産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金善澤(〈本道 畜産業의 當面課題〉, 《제주도》, 1964)이 養畜經營, 家畜資質, 牧草 및 飼料資源面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의 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하였고, 韓成郁(〈한우번식육성상의 문제점과 대책〉, 《남제주》, 1969)도 韓牛飼育과 번식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축산육성면에서는 梁大玪(〈濟州道の 畜産開發策〉, 《제주도》, 1962)이 道民의 구태의연한 畜産方式에 비판을 가하면서 축산진흥을 위한 구체적 시책으로 가축의 개량증식, 인공수정설시, 목초재배와 야생초의 이용, 전염병의 예방, 축산물의 가공과 기술인력의 자급자족 및 판로개척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高凌洙(〈畜産物의 消費分析과 그 對策〉, 《제주도》, 1967)는 축산물의 소비현황을 분석하고서 축산진흥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販路對策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1970 년대의 제주축산업에 관한 연구는 60 년대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제주축산업이 아직도 낙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연구와는 달리 연구분야가 약간 다양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안이 제시되고 또한 환경적 여건면에서 제주축산업의 진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특징을 갖는다. 제주도 축산업의 환경적 여건면에서 박창림(〈제주도의 축산의 장래〉, 《제주도》, 1970)은 제주의 환경적 여건면에서 축산업이 매우 유리함을 밝히고 낙농·비육우·양돈·양계의 방목화가 유망분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畜産開發策分野에서 鄭昌朝(〈축산을 주안으로 본 제주도 개발〉, 《제주도》, 1970 ; 〈濟州道 畜産開發을 위한 提言〉, 《제주도》, 1979)는 제주도 축산개발을 위해서는 가축증식, 사료생산과 초지조성, 축산기반조성과 기술지도 및 축산의 협업화와 기업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姜泰律(〈제주도畜産의 靑寫眞〉, 《제주도》, 1974)은 가축증식과 개량, 사료대책, 목축의 협업화, 낙농권장,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축산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낙농업 측면에서는 정창조(〈제주도의 특정산업: 낙농진흥을 위한 제언〉, 《제대학보》, 1976)가 낙농업이 제주지역에 적합하다고 보고 제주도 낙농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료수급면에서는 오성환(〈제주도 사료수급에 관한 연구〉, 《제주실전 논문집》, 1977)이 사료 문제해결과 장기적 수급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양잠은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농민의 소득증진 방안으로 적극 권장되었던 분야이다. 제주도에서도 양잠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예컨대 吳準福(〈桑田 造成의 必要性〉, 《제주시》, 1967)과 한길호(〈양잠단지의 문제점〉, 《북제주》, 1970)는 양잠의 필요성과 수익성 및 양잠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으나, 收益性 측면에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축산부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의 환경적 여건면에서 축산업이 매우

적절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道當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미흡과 農民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였으며, 특히 기업적 축산의 성격을 띠려면 영세농민의 입장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비관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도 축산업에 대한 연구는 제주도 축산업의 필요성을 시종일관 주장하게 되었으며, 複合營農으로 誘導 및 小規模營農의 문제점 개선 등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4) 水産業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沿近海漁業이 발달할 소지가 많은 지역이므로 수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수산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水産資源의 현황, 水産業振興의 문제점 및 漁業前進基地 등에 관한 것으로서 주어진 水産可用資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들이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획득에 따른 가공, 수산자원의 고갈과 양식 문제 등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예컨대 金永煥(〈本道水産業 振興의 諸問題點〉, 《제주도》, 1968)은 수산업 진흥방안으로 養殖業의 開發, 漁船漁業의 近代化, 漁業生産基盤의 조성 및 어업협동조합의 육성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박경희(〈南濟州郡 海岸의 海藻類分布狀況과 그 採取方法의 改善〉, 《남제주》, 1968 ; 〈본군연안의 어류 분포상황과 어획방법의 개선 및 계획방안〉, 《남제주》, 1969)는 남제주군 연안의 해조류, 어류의 분포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채취 및 어획방법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양동진씨와 오희표씨는 각각 翰林과 城山浦 漁業前進基地의 현황을 설명하고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養殖漁業)으로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養殖漁業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또한 양식에 관한 연구도 많이 나왔다. 1970년대에 金雲培(〈沿岸漁場의 養殖場化〉, 《제주도》, 1976)는 양식의 필요성과 養殖場化方案 및 그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80년대에는 吳熙杓(〈沿岸漁場 養殖化 개선방안〉, 《제주도업무개선발표회 발표논문》 1982)도 양식의 필요성과 양식장화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水産物의 流通合理化方案에 대해서는 金範國(〈濟州道産 農水産物의 流通近代化方案에 관한 調査研究〉, 《경영논총》, 1971)이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

며, 玄鶴淳(〈濟州道産 水産物の 流通合理化方案에 관한 研究〉, 《경영논집》, 1977)은 제주도 수산업의 유통상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나서, 수산물의 유통합리화방안으로 船上處理方法의 합리적 개선, 魚箱子の 개선, 漁港과 漁市場의 施設改善, 低溫貯藏施設의 확충, 수산물 집배센터의 설치와 연쇄화 경영, 해외시장조사의 실시, 수출용 漁業의 蓄養場設置 및 輸出活魚 수송의 高速化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製造業에 관한 研究

1960년대 제주도 제조업에 관한 연구는 2편뿐인데, 하나는 濟州大商學科(〈本道 製造業의 經營實態〉, 《제주도》, 1964)로서, 제주도 제조업의 경영실태를 實査에 의해서 연구분석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金範國(〈本道 製造業 實態〉, 《제주도》, 1968)인데 製造業의 규모와 형태, 업종별로 본 비중 및 업종별 실태면에서 제주도 제조업의 경영상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1960년대에 제조업에 관한 연구가 빈약한 것은 경영부문에 관한 研究所가 설립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는데, 1969년 9월에 제주대학의 부속기관으로서 「企業經營研究所」가 설립이 되고, 1970년부터 同機關에서 《經營論集》이 출간됨으로써 본도 제조업에 관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經營論集》1호에 실린 金範國의 〈濟州道內 製造業의 現況과 勞働者實態〉(1970년)에서 論者는 업종별 현황, 업종별비중, 규모별현황, 생산액에 대한 諸比率, 지역별분포 등을 중심으로 본도 제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또한 종업원종류별, 규모별, 연도별, 학력별 就業構成 및 업종별, 규모별, 임금지불형태별 임금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차후의 연구분석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 이후에는 各部門別로 제조업에 관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吳東弦(〈濟州道內 中小製造業의 經營實態分析和 經營合理化 對策〉, 《경영논집》, 1971)은 中小製造業의 경영현황을 설명하고, 구매, 생산, 판매, 재무부문별 경영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도내 中小製造業의 經營合理化 對策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제도의 도입, 경영자의 양성, 경영관리상의 계획과 통제 및 생산·판매·재무·구매 관리의 합리화와 같은 個別經營上의 대책과 협력활동의

전개,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같은 經營相互間의 협력적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吳東弦(〈濟州道內 酒精工業의 實態 및 經營管理改善에 관한 調查研究〉, 《경영논총》, 1972)은 酒精工業의 경영실태, 가격, 유통구조와 재무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원료의 부족, 규모의 부적, 자본구조의 불합리 및 합정주정의 대두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원료수급정책의 수립, 규모의 적정화 및 자본구성의 합리화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特化産業部門에 대한 연구에서 高南旭(〈濟州地域의 特化産業實態 및 開發育成에 관한 調查研究〉, 《경영논총》, 1973)은 地域特化産業의 정의를 서술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黑珊瑚 工藝品, 柑橘 및 油菜油部門을 有望特化産業分野로 선정하면서, 각분야별로 개발육성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4. 輸出에 관한 研究

제주도 지역의 수출액은 전국수출액에 비교하면 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며 수출 주종품목도 농수산물이다. 1962년부터의 經濟開發 5 個年計劃에 근거한 수출장려정책에 힘입어 제주지역에서도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수출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초의 수출에 대해서는 김성만(〈제주지역 수출산업의 수출증대방안 연구〉, 《제대학보》, 1964)은 제주지역 수출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주지역 수출산업의 수출증대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하여 「濟州道 自由化問題」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洪貞杓(〈自由化 좋으나 治安問題憂慮〉, 《제주도》, 1964), 李泰珍(〈領域自由化를 主張한다〉, 《제주도》, 1964), 姜應五(〈受入態勢確立부터〉, 《제주도》, 1964) 등은 제주도를 자유항으로 만든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자유항설치의 문제는 완전히 백지화된 상태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농수산물 그중에서도 수산물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예로서 현학순(〈닭새우어업의 동향과 상품화정책〉, 《제주도》, 1965; 〈農漁民 所得增大를 위한 農水産物의 輸出増大方案〉, 《제주도》, 1967)은 농수산물의 수출증대가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

면서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1970 년대의 수출에 관한 연구에서 玄鶴淳 (<濟州道의 水産物 輸出에 관한 調査研究>, 《경영논집》, 1970)은 제주도 수산물의 수출동향을 설명하고 제주도산 수산물의 수출전망을 분석하면서, 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해서 漁港과 漁船 勢力의 확충, 水産資源의 보호와 기술개발의 촉진, 海外市場調査의 강화 및 합리적인 수출상품정책의 수립 등을 정책적 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980 년대의 수출에 관한 연구는 채소류의 수출과 수산물의 수출에 관한 것이 있는데, 우선 채소류의 수출에 대해서는 강경선 (<제주도 겨울작물 '채소류'의 유통 및 對日수출증대에 관한 연구>, 《제대논문집》, 1983)은 일본의 채소류 수급 실정과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상황 및 일본의 채소류 수입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제주도산 채소류가 수출경쟁력면에서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생산·출하의 System化 및 수출전락화를 통해서 수출증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의 수출에 대해서는 문원석 (<제주도 특산물의 수출증대 방안연구:수산물을 중심으로>, 《제대논문집》, 1983)씨가 제주도 수산업의 일반동향과 수산물의 수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수산물의 수출가격 안정화의 기틀조성, 해외시장조사의 강화 및 합리적인 수출상품화계획의 수립 등을 수산물 수출증대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새마을所得増大事業에 관한 研究

自助, 自立, 協同을 모토로 하는 새마을운동은 제주도 개발계획과 맥을 같이 하면서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1960 년대의 농어민소득증대에 관해서 金秉洙 (<本市 農漁民 所得増大方案>, 《제주시》, 1968)는 식량작물과 경제작물의 증산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임문호 (<濟州市 새마을運動의 所得増大>, 《제주시》, 1968)와 金文瑄 (<濟州市 農漁民 所得増大問題>, 《제주시》, 1969)은 농수산물 生産増大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구자춘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5대특별사업과 그 전망>, 《제주도》, 1969)도 농어민소득증대를 제주지역 개발계획과 맥을 같이 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 년대의 새마을소득증대에 관해서, 부종철 (<제주지역의 새마을운동 전개방

향을 위한 실질적 연구: 경제적 측면에서), 《경영논집》, 1972)은 새마을운동의 본질과 배경을 설명하면서 제주지역의 산업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의 새마을운동과 집행·추진기구를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현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부종철(<지역특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원의 개발방안>), 《새마을연구회지》, 1980)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용경제작물증산과 복합영농방식에 의해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추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은 독자적인 계획으로써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개발계획의 추진과 병행하여 특용작물재배 및 복합영농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마을소득증대사업에 관한 연구의 공통적 특성이다.

6. 전 망

1960년대에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의 수행과 함께 제주도도 경제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제발전이 部門間에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이 아니라, 감귤과 관광을 중심으로한 개발이었으며, 따라서 이 部門은 생산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였으나 나중에는 감귤의 과잉생산으로 농민의 타격은 막대하였고 또한 관광을 육성하는 것은 지역적 여건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었지만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외형에만 치중함으로써 도민의 소득증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1970년대말과 1980년대에 도민의 1인당 소득이 전국에서 중하위권으로 밀려나게 된 원인은 결국 濟州道開發政策이 均衡發展보다도 너무 한 측면에 치우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제에 관한 연구도 集中育成하는 분야로 집중되었으며, 수준 높은 연구도 그 분야에 몰려있고,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는 개괄적이고 피상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경제에 관한 연구가 특정분야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 부문에 걸쳐 골고루 수준 높게 이루어져야만, 이를 기초로 한 정책당국자의 정책실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간단히 요약하고 각 부문의 연구과제를 개관하여 보자.

(1) 地域經濟開發

지역경제개발에 관한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는 賦存資源의 현황을 피상적으로 간단히 고찰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에도 지역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있어서 지역경제개발이라는 綜合的 觀點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후의 연구과제라고 하겠다.

첫째로 賦存資源(物的・人的資源)의 현황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潛在資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개발의 可能性과 개발에 따른 이익은 얼마인가를 연구하여야 한다.

둘째로 제주도 산업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제주도 산업구조의 變化推移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떤 不均衡要因들이 잠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로 地域經濟에 적합한 特化産業의 선정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특화산업의 선정에는 도민의 소득에 長期的으로 기여할 수 있는 部門이 選定되어야 하며, 단기적 안목에서 집중육성하는 것보다는 특화산업이 아닌 部門(自給自足的 經濟에 해당되는 産業部門)과의 연관성을 모색하면서 균형적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즉 特化産業의 집중적인 육성은 단기적으로 그 산업에 기인한 所得增大에는 크게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파생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로 제주도의 특수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均衡的인 경제발전과 나아가서는 韓國經濟 전체와의 연관성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韓國經濟의 構造分析과 제주도 地域經濟의 構造分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경제 속의 제주도 지역경제발전이란 문제가 연구되어야 한다.

(2) 農水産業

제주도의 産業生産中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이 농수산업이며, 이 부문의 육성은 지역적 여건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勞動生産性이 낮고 雇傭의 파급효과가 적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부문도 選別的 육성이

바람직하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이런 選別的 育成에 기인하여 選別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알찬 연구가 상당수에 이른다. 앞으로의 연구에는 다음 사항이 보완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첫째로 農業面에서 特用作物의 선정에 관한 연구가 보다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용작물의 가공처리 및 판로문제도 아울러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방안, 축산물의 가공처리 및 판로문제도 연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農畜產物의 생산문제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의 가공처리와 같은 製造業 및 판로문제와 같은 流通・輸出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둘째로 水産業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으나, 雇傭波及效果가 큰 가공처리와 內需・輸出問題가 또한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3) 製造業

製造業에 관한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상태에 관한 분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어떤 업종을 육성발전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다. 勞働生産性 및 雇傭波及效果面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는 製造業이 제주도 産業生産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인데, 이것은 제주도가 消費地域이란 특성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지역경제의 장기적 발전은 결과적으로 2次産業의 육성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우선 제주지역 특산물의 가공처리에 관한 研究가 農水産業에 관한 연구와 병행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業種分野의 유치문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다. 물론 이 부문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관광산업과 연관하여 無公害産業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人的資源의 需給問題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製造業 분야만이 그 연구대상이 될 수 없고 人力資源의 개발문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V. 觀 光

제주도의 觀光은 역사가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는 量的인 面에서

餘他分野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이는 본도의 自然 및 社會經濟的 입지조건으로서 우수한 自然景觀과 특이한 民俗的인 生活風俗과 文化를 간직하고 있어 國內 그 어느 곳에서도 그 類型을 찾아 볼 수 없는 우수한 관광지의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潛在力이 일찍부터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1960년대초부터 발아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觀光產業의 발전과 발맞추어 본도에서도 관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 연구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관광산업은 급속하게 성장하였는데 이는 관광산업이 첫째 外貨獲得의 원천이 되고, 둘째 國民所得의 創出 및 產業波及效果, 雇傭增大 효과를 가져오며, 셋째 國際觀光客의 유치를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우리나라의 참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나아가 문화의 교류 및 民間外交를 통한 국가간의 이해 증진 등에 의해 國際的 지위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觀光을 戰略產業으로 중점 육성한 결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제주도도 「國土綜合開發計劃」상의 1個 中圈인 濟州圈으로 설정되고 그 개발방향의 제시에 의해 「濟州道觀光綜合開發計劃」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도 관광은 개발육성기를 맞았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濟州大學內 및 濟州專門大學內 觀光學科의 創設을 봄으로써 그 學術的 연구는 본 궤도에 올랐다.

더우거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간의 「觀光綜合開發計劃」의 추진성과에 대한 회의 및 비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自然 및 社會經濟的인 立地的 潛在力은 더욱 높이 평가되어 2001년까지의 장기의 「特定地域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複合機能의 自由地域까지 고려하는 제주도 관광의 深化發展期를 맞으면서 제주도 관광에 대한 연구도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

따라서 본고는 지금까지의 제주도 觀光分野에 대한 연구결과를 대상으로 시대별 연구동향과 분야별 연구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제주도 관광에 대한 연구결과를 概觀해봄으로써, 첫째 제주도 관광의 연구현황을 통해 그 과거와 현재를 알게 됨으로써 제주도 관광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指標를 파악해 볼 수 있게 하며, 둘째 관광이 아직 학문적으로도

日淺하기 때문에 그 발전이 미흡한 상태에 있는데 제주도 관광에 대한 연구현황을 학술적으로 체계화하여 理論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제주도의 觀光學研究 및 관광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계 다가오는 大衆觀光(Mass Tourism) 時代에 있어서 건전한 觀光倫理와 觀光風土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國民觀光의 본질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濟州道 觀光에 대한 研究動向

국제관광객이 본도를 최초로 내도한 것은 1948년 4월 駐韓外國公館員, 駐韓外國實業人, 駐韓記者 등 80여명으로 구성된 Royal Asiatic Society가 본도를 방문 여행하였을 때이다. 그후 본도내에서 관광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 후반기부터 나타나 1957년에는 南濟州郡觀光施設推進委員會가 결성되고 1959년 서귀포관광호텔의 개관, 濟州道觀光開發3箇年計劃(1960~62) 등으로 나타났다. 이 3箇年計劃은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觀光宣傳, 觀光道路開設, 觀光案內所設置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조달의 미흡, 정치적 상황의 변동 등의 요인에 의해 계획의 집행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1961년 觀光事業法の 制定, 1962년 文化財保護法の 制定, 國際觀光公社의 設立 등과 더불어 1963년 國土綜合開發計劃法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도내에서도 본도개발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으로서 1964년 12월 濟州道綜合建設計劃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濟州道建設綜合開發計劃審議會에 의해 작성된 10개년계획으로서 본도개발은 農業, 水產, 畜產, 工業, 觀光, 社會間接資本施設 등의 분야를 종합한 개발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개발의 綜合開發戰略의 一部門戰略으로서 觀光開發을 고려하고 있었다.

1966년 제주도가 京仁, 太白, 牙山, 榮山江地域 등과 더불어 特定地域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建設部の 《濟州道 特定地域 綜合建設計劃報告書》(1967), 韓國綜合技術公社의 《濟州道 特定地域 綜合建設調査報告書》(1968)가 조사 보고되었다. 이들 조사보고서에서는 본도가 國土建設綜合計劃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의 賦存度와 개발효과를 고려하여 농수산 및 관광자원개발에 역점을 둘 것을 제시하였다.

제주도 관광에 대한 세미나 및 좌담회도 개최되었는데 1967년 9월 제주도와 國際觀光公社가 공동주최한 濟州道 觀光開發세미나가 열려 金儀遠의 〈國土計劃上으로 본 濟州道〉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1968년 3월에는 제주도 주최에 의해 「제주도 관광과 民俗」에 관한 좌담회도 개최되었다.

1969년 7월 文公部에 의해 제주도가 文化財管理示範園地로 지정되는 것을 전후하여 文化的 觀光資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송석범의 〈本道文化財의 效率性〉의 다수의 논문이 있다.

1960년대의 연구동향을 요약하여 볼 때 첫째 文化的 觀光資源에 대한 연구가 部分的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주도개발의 전략적 관점에서 관광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나 斷片的이며 序說的인 연구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조사연구가 국가의 觀光開發政策과 地方行政과의 밀접한 관계속에서 중앙정부의 제주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정책의 일환으로 혹은 地方行政方向의 모색과정으로 연구되었다. 이는 60년대에 발표된 조사연구물들이 개발계획사업에 대한 調查研究報告書이나 行政誌인 《제주도》誌를 통해서 발표된 연구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濟州道觀光에 대한 연구가 1960년대보다 그 조사 및 연구영역이 확대, 細分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깊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①國立公園・指定觀光地의 指定告示, ②觀光綜合開發計劃의 確定, ③ 濟州大學 및 濟州專門大學內 觀光學科의 設置, ④《濟州道》등의 행정지외에 민간에서 발간된 《月刊濟州》, 《開發濟州》등의 종합잡지의 발간 등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1970년 3월 한라산이 國立公園으로 지정공고되고, 1971년 5월 龍淵・萬丈窟・正房瀑布・安德溪谷・天帝淵 등이 지정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제주도》誌 第44號는〈漢拏山國立公園指定과 開發〉이라는 특집을 다뤄 金鶴昭外 9인의 연구논문을 실어 한라산국립공원의 指定背景, 動植物의 分布狀態, 開發方向 및 資源保護方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指定觀光地에 대한 연구도 정남조의 〈濟州市 龍淵地

區 觀光地 指定展望(1971), 徐庚林의 〈龍淵一帶의 觀光開發方向〉(1975)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둘째, 1972년 12월 확정된 濟州道觀光綜合開發計劃에 의해 관광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연구활동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 관광종합개발계획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계획기간으로 되어 있는 第1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濟州圈에 대한 開發指標로서 한라산의 수려한 觀光資源과 漁業前進基地로서의 지리적 특수여건을 살려 濟州市와 西歸浦를 연관개발하여 국제적 관광지로 적극 개발하라는 濟州圈開發의 基本構想에 따라 성안된 계획으로서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계획기간 10년동안 총 1,42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濟州觀光綜合開發計劃團(단장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이 관광개발에 대한 Master Plan으로서 《濟州道 觀光綜合開發計劃》(1973~1982)이 조사 보고되었으며 濟州道特別建設局에 의해 《濟州觀光綜合開發計劃—觀光地區(I), 國立公園 및 其他(II)》로 조사 보고되었다. 또한 1978년 中文觀光地區가 국제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國際觀光公社에 의해 中文圈地開發에 대한 조사보고서 《中文觀光圈地開發計劃》이 조사연구되었다.

세째, 1973년 3월 제주대학 및 제주전문대학내 觀光學科가 신설됨에 따라 관광에 관한 본격적인 학술활동이 시작되어 제주관광에 대한 理論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梁宇鎮, 高南旭, 徐庚林, 金敬昊, 金太永, 李根씨 등이 大學論文集들을 통해 연구물들을 발표하였으며, 1975년 3월 제주대학내 觀光開發研究所가 개소되어 研究論文集의 發刊을 통해 高南旭의 〈濟州圈域 地域開發의 方向設定에 관한 研究〉, 徐庚林의 〈國民觀光의 本質과 그 方向〉의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이 연구논문집은 1976년에 제2집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가 발행하는 《제주도》誌를 비롯한 각 市郡의 기관지외에 민간에서 발행하는 《月刊濟州》, 《開發濟州》, 《濟州商工》등의 綜合雜誌들을 통해 제주관광에 대한 연구물들이 많이 나왔다. 《開發濟州》는 1975년 8월 창간호에서 〈濟州觀光 綜合開發計劃〉을 특집으로 다루었고 그외 《耽羅》, 《漢拏山》등의 종합잡지를 통해서 다수의 연구물들이 나왔다.

그리고 濟州道の 評價敎授團 및 道政諮問委員會에 의해 발간된《道政研究 및

評價報告書》를 통해 梁重海의 〈民俗文化的 保護育成方案〉(1978), 金順澤의 〈觀光濟州의 英文案内板 改善方案〉(1973) 외 다수의 연구논문이 나왔다.

1970 년대의 연구동향을 요약하여 보면 초기에는 觀光開發의 方向, 綜合開發計劃 觀光施設 및 觀光事業의 振興 등이, 후반기에 가서는 自然 및 文化資源의 保存, 觀光開發과 道民所得의 연계방안, 개발에의 참여방안 등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1980 년대에 와서는 濟州觀光에 대한 연구가 보다 발전 심화되었는데 1982 년까지 계획기간으로 되어 있는 濟州觀光綜合開發計劃의 그 완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추진성과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2 년부터 제 2 차 國土綜合開發計劃이 수립됨과 동시에 國土綜合開發計劃上的 特定地域인 本道가 「特定地域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을 준비함에 따라 종전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의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새 계획의 합리적인 基本方向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새로운 觀光綜合開發計劃은 종전의 개발이념을 탈피하고 개발목표도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연구로서 金太永의 〈濟州道 觀光綜合開發計劃에 대한 再考〉(1982), 제주신문의 〈國際化에 밀려 소중한 地域特性 잃지 말아야〉 등이 있다.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觀光開發實態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金敬昊의 〈觀光開發의 문제점과 改善方案〉, 張誠洙의 〈濟州道 觀光開發의 當面課題〉 등을 들 수 있다.

관광자원 분포에 대한 地理學的 分析和 觀光產業에 대한 地域經濟構造的 분석을 통해 개발전략을 제시한 연구로서 宋成大의 〈觀光資源分布性向에 의한 濟州道の 地域別 觀光性〉, 金泰保의 〈地域經濟成長을 위한 觀光產業振興方案 : 濟州圈을 中心으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제주도 관광개발에 있어서 觀光客의 誘致 및 선전에 대한 연구도 夫萬根의 〈濟州道 觀光開發과 日本人觀光客 誘致方案〉, 玄成休의 〈觀光濟州의 Marketing Approach〉 등이 있다.

1980 년대의 제주관광연구에 대한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은 1983 년 7 월 제주도와 國土開發研究院이 공동주최한 「濟州道 地域開發을 위한 開發學術會議」과 1983 년 11 월 世界平和教授協議會 濟州道支會가 개최한 「國際化時代와

濟州道」에 관한 學術세미나가 열려 국내외 다수 학자가 참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제주도와 국토개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학술회의는 「特定地域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을 수립하는 데 이론적 기초를 얻기 위하여 관광개발을 포함한 제주도 개발에 대한 基本構想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Tai-joon Kwon 의 〈Opening the Gateway of the Pacific〉, Jeong-sik Lee 의 〈New Approaches to Developing Multi-Functional Free Trade Areas〉 등 10 여편에 이르렀고 「國際化時代와 濟州道에 관한 學術세미나」에서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제주도 관광개발의 방향에 대해 徐庚林의 〈國際化時代와 濟州道觀光開發의 方向〉의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980 년대의 제주관광에 대한 세번째의 특징은 禹樂基의 《國民觀光(I) : 濟州道編》, 金太永의 《現代觀光學概論》, 李根의 《觀光資源論》 외에 제주도에 의한 《濟州道誌》의 발간이다. 金太永과 李根의 著述은 비록 제주관광연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觀光學分野의 저술이 비교적 많지 않은 관광학계의 여건으로 볼 때 觀光學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濟州道誌》는 상·하 양권으로 총 1,884 面에 이르는 제주도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자료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觀光分野는 하권 제 4 편 제 10 장 觀光서비스業, 제 14 장 濟州觀光綜合開發計劃, 第 6 編 古蹟·文化財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2. 分野別 研究 概觀

1) 觀光資源

제주도 관광자원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 걸쳐 연구되었다. 60 년대에는 觀光資源의 내용소개 및 現況, 効用性 등에 대해 단편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70 년대에 들어와서 觀光資源의 價值, 活性化方案, 資源의 開發과 保護의 調和問題 등에 대한 밀도 깊은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관광자원을 自然的, 文化的, 社會的 및 產業的 資源으로 분류할 때 濟州道の 自然的 資源에 대한 연구는 漢拏山國立公園, 洞窟, 動景觀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漢拏山國立公園에 대한 연구는 1970년 3월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제주도》誌 제 44호에서 〈漢拏山國立公園指定과 開發〉이라는 특집을 다루어 김학소 〈한라산국립공원 지정의 배경〉, 한치문의 〈한라산국립공원 지정의 의의〉, 박만규의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개관〉, 이민재의 〈한라산의 식물과 그 보존〉, 박행신의 〈한라산의 동물상〉, 현용준의 〈한라산에 얽힌 전설과 신앙〉, 조지·C·불리의 〈한라산국립공원을 위한 제언〉, 고영기의 〈천연성과 효용성사이의 시련〉, 홍순만의 〈한라산 국립공원과 자연자원보존〉, 강경주의 〈한라산국립공원개발계획의 개요〉 등 10인의 연구결과를 통해 한라산국립공원의 指定背景, 意義, 動植物의 分布狀態, 開發方向 및 資源保護方案 등에 걸쳐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1973년 靑瓦臺 觀光開發計劃圖에 의해 작성된 濟州道觀光綜合開發計劃에 의하면 漢拏山國立公園을 濟州市, 中文地區 및 海岸地區 등과 더불어 山岳地區로 구분 개발할 것을 제시하였고 제주도 特別建設圖에 의해 작성, 보고된 濟州 觀光綜合開發計劃(基本計劃調查) 報告書는 그 제 2편에서 漢拏山國立公園을 영실, 성판악, 관음사, 어승생지구 등의 集團施設地區를 대상으로 개발의 타당성 시설 및 규모 등에 대한 기본계획이 작성 보고되었다.

점차 漢拏山 국립공원에 대한 연구는 본도 관광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漢拏山國立公園의 보호대책에 대한 연구도 여럿 이루어졌는데 愼相範의 〈제주도觀光과 漢拏山國立公園〉(《濟州道》 63, 1974), 尹漢柄의 〈漢拏山の 保護對策〉(《耽羅》 10, 1976), 김창화의 〈天然保護와 漢拏山國立公園〉(《濟州市》 13, 1970), 吳桂七의 〈漢拏山 天然保護區域에 대하여〉(《濟州道》 64, 1974) 등이다.

洞窟에 대한 研究는 康勝三의 〈濟州道の 火山・洞窟 및 그 自然景觀〉(《耽羅》 12, 1982), 金仁學의 〈資源으로의 開發價値 높아 資源側面에서 본 濟州道 洞窟〉(《開發濟州》 11, 1976)을 들 수 있다.

動景觀에 대한 연구도 金福萬의 〈도로주변공간의 觀光効用性 提高方案〉(《제주전문대학논문집》 5, 1983)이 이루어졌는데 漢拏山 第一橫斷道路周邊景觀을 이용한 動景觀創出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濟州道の 文化的 觀光資源에 대한 연구는 文化的 觀光資源의 현황, 가치성, 효율

성 및 보존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 本道 文化的 觀光資源의 현황에 대한 연구는 홍순만의 〈濟州道の 文化財 概觀〉(《濟州道》 72, 1977), 全昌壽의 〈濟州道の 文化財〉(《濟州道》 61, 1970), 현동호의 〈濟州市 文化財 現況〉(《濟州市》12, 1969), 송석범의 〈歷史上에서 본 北濟州郡 文化財〉(《北濟州》 56, 1967), 文基善의 〈觀德亭 詳考〉(《濟州市》 5, 1967) 등이 있다.

濟州文化的 觀光資源의 가치성 및 효율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송석범의 〈濟州道 文化財의 價値性〉(《南濟州》 12, 1970) 및 〈本道 文化財의 効率性〉(《北濟州》 49, 1966) 등이 있다.

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연구는 宋錫範의 〈本道 文化財保存에 대한 小考〉(《北濟州》 55, 1967), 玄昌淑의 〈濟州道 文化財保護管理上의 문제점 및 改善방안〉(《제주도 업무개선발표회 발표논문》 1982), 洪貞杓의 〈文化財 保護對策〉(《濟州道》 55, 1972), 부운화의 〈文化財保護와 觀光事業: 南濟州郡을 中心으로〉(《南濟州》 7, 1969), 정수현의 〈南濟州郡 文化財實態와 保護에 대한 問題點〉(《南濟州》 56, 1968) 등인데 本道文化財 保存管理上의 문제점과 보존방안을 연구의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濟州民俗에 대한 연구도 본도 민속의 현황, 보존 및 관광자원화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玄容駿의 〈濟州道 民俗 2 題〉(《濟州道》 61, 1973), 조재부의 〈濟州道の 風物과 民俗〉(《北濟州》 51, 1966), 金榮敦의 〈濟州民俗의 保存〉(《南濟州》 16, 1971), 〈民俗村 指定・保存을 위한 문제점 및 방안〉(《濟研》 4, 1977), 진성기의 〈濟州道 民俗保存의 문제점〉(《濟州道》 60, 1973), 高南旭, 徐庚林의 〈濟州民俗村造成에 관한 연구: 특히 觀光의 側面을 중심으로〉(《知恩邊時敏 博士 回甲記念論文集》 1978), 徐庚林의 〈濟州民俗의 觀光資源化方案〉(《濟大論文集》 10, 1978) 등의 연구가 있다.

제주도의 社會的 및 產業的 觀光資源에 대한 연구는 梁重海의 〈濟州道觀光과 文化行事〉(《濟州道》 30 1967), 공옥자의 〈濟州道の 食生活〉(《濟州道》 61, 1970) 등과 金旻浩의 〈풍부한 수렵 자원〉(《開發濟州》 13, 1976), 金君天의 〈濟州道の 수렵〉(《濟州道》 61, 1970), 朴行信의 〈濟州道の 哺乳類〉(《濟州道》 61, 1973) 白雲哲의 〈濟州道の 木物壽石〉(《濟州道》 61, 1979) 등이 「濟州道 名物の 再發見」이라는 特輯시리즈로 발표되었다.

제주도의 觀光資源現況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韓國觀光公社가 1972년 6월 창간호를 내고 이어서 1978년 9월에 증보판으로 발간된 韓國觀光資源總攬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책의 濟州道篇을 보면 地域概要, 瀛州十景外에 各種 溪谷, 洞窟, 自然資源을 비롯하여 文化, 社會, 產業的 觀光資源 등 전 觀光자원을 대상으로 지역특성 및 관광성, 개발잠재력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해설되었다. 그외에도 개인저술로서 禹樂基의 《國民觀光: 濟州道篇, 1982》과 梁宇鎮, F.H. Dustin, 康壽彦의 3인공저인 《Korea's Island Province: An Introduction to Cheju-do》(濟州大學 觀光開發研究所 刊行, 1975) 등이 있다.

관광자원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李相治의 〈濟州道 觀光資源開發에 대한 小考〉(《濟州道》30, 1967), 徐明錫의 〈濟州道 觀光資源開發의 意義〉(《濟州道》5, 1967), 金福萬의 〈濟州道와 觀光資源開發에 대한 研究〉(《濟州專門大學 論文集》4, 1982), 徐庚林의 〈濟州道 觀光資源의 活性化方案〉(《濟州大學 論文集》9, 1977), 徐庚林의 〈제주도 觀光資源의 利用實態와 課題〉(《濟州大學 論文集》8, 1976) 등이 있는데 金福萬의 논문은 海岸觀光資源을 중심으로 관광특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補完資源의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徐庚林은 上記 두 개의 논문을 통해 제주도가 부존하고 있는 觀光資源의 매력성을 재검토하여 觀光資源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自然的 觀光資源의 保全, 觀光開發과 自然環境保存의 조화문제에 대한 연구는 張明奉의 〈濟州道の 自然環境保全問題〉(《耽羅》12, 1982), 姜京淑의 〈濟州道 自然保護에 관한 연구〉(《東國大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6), 徐庚林, 李宗錫의 〈觀光開發과 自然保護運動의 連繫推進方案〉(《濟州道새마을運動 10周年記念 論文集》, 1980), 徐庚林의 〈觀光資源開發과 保護〉(《濟研》2, 1975), 金相昊의 〈自然景觀의 開發과 保全問題〉(《漢拏山》5, 1974), 張明奉의 〈觀光開發과 自然保護〉(《耽羅》10, 1976), 玄化珍의 〈觀光施設의 擴充과 天然資源의 保護〉(《南濟州》9, 1969), 梁相翊의 〈觀光資源開發과 保護管理〉(《南濟州》17, 1971) 등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본도 觀光開發事業이 본격화되면서 부터 무분별한 開發行爲로 인해 자연경관이 파괴되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觀光開發

濟州道の 觀光開發에 대한 연구는 觀光開發의 방향, 실태 및 효과, 관광개발 사업에의 주민 참여방안, 綜合開發計劃 등에 대해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제주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는 金圭東의 〈本道觀光開發의 基本方向〉(《濟州道》28, 1966), 洪性琳의 〈濟州道觀光開發의 方向〉(《濟州道》50, 1971), 權永喆의 〈濟州道觀光開發의 基本方向〉(《濟州市》5, 1967), 高永璫의 〈濟州觀光開發과 傳統文化의 창조적 계승〉(《教育濟州》49, 1973), 康龍炫의 〈濟州道觀光에 대한 提言〉(《濟州市》4, 1967), 韓致文의 〈觀光을 주안으로 한 濟州道開發〉(《濟州道》46, 1970), 김재흥의 〈牧家的인 田園觀光〉(《濟州市》15, 1970), 玄化珍의 〈觀光開發에 대한 提言〉(《南濟州》1, 1967), 姜京周的 〈뻔어가는 觀光濟州〉(《濟州道》76, 1979) 등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연구의 공통점이 觀光開發의 기본방향은 제주도의 수려한 自然景觀과 고유의 文化환경을 조화시켜 지역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觀光開發의 실태 및 개선, 시설확충방안에 대한 연구도 金敬昊의 〈觀光開發의 問題點과 改善方向〉(《濟州大學 論文集》12, 1981), 徐庚林의 〈濟州觀光의 現狀과 課題〉(《漢拏山》6, 1976), 朴才萬의 〈濟州道觀光開發에 대한 研究〉(《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6), 高南旭의 〈觀光開發計劃의 問題點〉(《韓國地理研究所 創立記念學術심포지움 發表論文》, 1976), 張聖洙의 〈濟州道觀光開發의 當面課題〉(《濟大學報》23, 1983), 石東鎭의 〈觀光開發促進에 따른 問題點 및 力點〉(《濟州市》5, 1967), 고영기의 〈濟州道觀光의 문제점〉(《濟州道》50, 1971), 金순택의 〈濟州道觀光의 문제점〉(《濟州市》13, 1970) 등이 있는데 高南旭의 논문은 土地利用側面에서 觀光開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지역문제의 실태와 그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金敬昊의 논문도 指定觀光地를 대상으로 개발실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 정리하고 있다.

또한 觀光開發事業의 추진에 있어서 도민의 참여방안과 주민소득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도 徐庚林의 〈觀光開發에 道民의 參與方案〉(《濟研》6, 1982), 高영은의 〈在日僑胞의 鄉土開發參與〉(《濟州道》64, 1974), 金봉학의 〈濟州道民의 鄉土開發參與〉(《濟州道》25, 1966), 金仁濟의 〈濟州道 觀光開發施策의 隨件

效果에 대한 考察》(《濟州道》29, 1967), 金大根의 〈觀光開發과 道民所得増大〉(《濟州道》36, 1981), 高南旭의 〈濟州道觀光開發과 道民所得과의 連繫方案〉(《濟州道》70, 1979) 등이 이루어졌다.

濟州道觀光綜合開發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건설부에 의해 작성, 보고된 《濟州道 綜合開發을 위한 土地利用의 基本構想》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종합적인 연구는 1972년 확정 착수된 國土綜合開發計劃에서 濟州圈開發의 기본방향이 설정되면서 최초로 1973년 2월에 靑瓦臺觀光開發計劃團에 의해 작성된 濟州觀光綜合開發計劃이었다. 이 종합개발계획의 개요를 보면 開發期間을 1973년부터 1982년까지의 10년간으로 설정하여 一段階(1973~1976)에서는 交通・通信條件의 개선, 관광단지조성과 全道民의 觀光要員化를 위한 교육훈련 등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2段階(1976~1982)에서는 中文・濟州市・西歸浦・山岳・洞窟・文化觀光地를 중점개발하여 기본계획에 의한 濟州觀光圈開發을 완성하는 데 그 目標을 두고 있다.

1974년 12월 建設部 濟州特別建設局은 靑瓦臺 觀光開發計劃團에서 제시한 基本計劃에 따라서 觀光地區에 대하여 개발을 위한 자료정비 및 보다 합리적인 개발계획에 기여코자 하는 개발의 타당성 조사, 각지구의 시설배치계획 및 시설 규모, 면적 등의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담은 《濟州觀光綜合開發計劃:觀光地區(I), 國立公園 및 其他(II)》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975년 12월 濟州道特定地域 觀光綜合開發計劃이 공고되었고 78년부터 中文地區가 국제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韓國觀光公社에 의해 中文觀光團地開發計劃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외에도 해안지구를 대상으로 한 威德, 朝天 등지의 개발계획을 위한 보고서가 北郡 및 민간에 의해 작성되었다.

제주관광종합개발에 대한 개인연구들은 濟州道觀光綜合開發計劃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계획의 합리적인 기본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는 金太永의 〈濟州道觀光綜合開發에 대한 再考〉(《濟州專門大學 論文集》3, 1982), 金泰保의 〈濟州圈開發을 위한 地區圈의 設定과 開發戰略에 관한 연구〉(《濟州大學 論文集》16, 1982) 등이 이루어졌다.

濟州觀光綜合開發計劃은 濟州・中文・山岳・海岸 등 7개 지구로 구분하여 관광지구별로 개발추진토록 되었는데 관광지구를 대상으로 개발방향, 지구의 성

격, 관광지조성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梁重海의 〈濟州市觀光地區에 대한 建議〉(《道政研究 및 評價報告書》, 1975), 정남조의 〈濟州市 龍淵地區觀光地指定展望〉(《濟州市》17, 1971), 徐庚林의 〈龍淵一帶의 觀光開發方向〉(《濟州商工》, 1975), 고복남의 〈濟州市觀光의 문제점〉(《濟州市》14, 1970), 김재흥의 〈觀光都市로서 濟州市〉(《濟州市》3, 1967), 한창영의 〈濟州市 觀光與件과 都市性格〉(《濟州市》12, 1969), 양창홍의 〈濟州市 觀光地造成計劃〉(《濟州市》11, 1969), 金敬昊의 〈中文觀光團地 補完地域의 開發方向〉(《濟州大學論文集》10, 1979), 현상기의 〈西歸浦 觀光團地造成計劃〉(《南濟州》, 1968) 등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金敬昊의 논문은 中文觀光團地가 國際觀光團地로 개발함에 있어서 그 자체만 개발하는 경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中文團地 주변자원을 보완지역으로 묶어 中文團地와 병행하여 개발하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觀光事業

제주도의 觀光事業分野의 연구는 관광산업이 본도의 자연 및 사회경제적 立地上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광산업의 실태 및 比較優位性, 振興育成方案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의 관광사업의 실태 및 진흥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는 高南旭의 〈濟州地域の 觀光事業實態와 振興方案〉(《濟大觀光研究論文集》2, 1976), 玄鶴淳의 〈南濟州郡의 觀光事業展望〉(《濟州市》17, 1971), 濟州市公報室의 〈濟州道觀光事業實態와 開發計劃〉(《濟州市》17, 1971), 姜祥保의 〈濟州道 觀光事業에 대한 小考〉(《濟州道》2, 1962), 고해룡의 〈本道 觀光事業의 어제와 오늘〉(《濟州道》43, 1970), 홍성택의 〈濟州道 觀光事業振興에 대한 提言〉(《濟州市》17, 1971), 金仁卓의 〈濟州道 觀光産業의 育成〉(《濟州道》63, 1974), 현만식의 〈南濟州郡 觀光産業의 擴大開發과 必要性〉(《南濟州》36, 1979), 김영진의 〈濟州地域의 觀光振興方案〉(《경희대 경영대학원 碩士學位論文》1980), F.H.Dustin의 (Cheju Resource Exploitation: Relating Cheju Resource Development to Projects within the Scope of Local Entrepreneurs)(《耽羅文化》2, 1983) 등 다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高南旭의 논문은 제주지역에 대한 觀光資源, 觀光

交通, 觀光產業, 觀光客의 動向, 觀光地의 開發整備計劃 등 광범위한 실태분석을 통해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觀光產業振興의 基本方向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있다.

觀光事業을 本道地域經濟構造의 분석을 통해 타지역과의 比較優位性을 파악하여 관광산업의 진흥방안을 제시한 연구논문으로 金泰保의 〈地域經濟 成長을 위한 觀光產業의 振興方案: 濟州圈을 中心으로〉(《濟州大學 論文集》12, 1980), 濟州道研究團의 〈올림픽을 통한 地域經濟活性化方案〉(《第22回 地方行政研修院 發表會參加論文》, 1982) 등이 있다.

觀光產業으로서 宿泊業에 대한 연구도 金敬昊의 〈濟州圈域 觀光宿泊業에 관한 考察〉(《耽羅》1, 1982) 과 〈濟州地域 宿泊業에 대한 小考〉(《濟大學報》17, 1977)이 있는데 그는 위의 논문들을 통해서 숙박업소 및 수용능력의 지역적 편차가 濟州市 및 西歸浦市의 비대화를 가져오고 관광코스의 單純化, 관광지의 俗化現象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광특산물로서 관광토산물, 향토음식 등에 대한 연구는 金敬昊의 〈濟州地域 土產品業의 課題〉(《濟州大學 論文集》15, 1982), 金濟植의 〈觀光商品으로서의 民藝品 開發〉(《開發濟州》5, 1977), 梁重海의 〈觀光土產品開發의 問題點研究〉(《濟州道政研究報告書》15, 1976)와 〈濟州道 郷土飲食 開發의 方向〉(《道政研究報告書》8, 1980) 등이 있는데 연구에 있어서 공통점은 본도 특성을 살린 토산품들이 많지 않으며 품질수준과 가격체계가 미비된 상태로서 효과적인 토산품의 육성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觀光交通產業에 대한 연구도 玄鶴淳의 〈濟州道 觀光產業發展에 따른 旅客輸送의 合理化方案〉(《濟州道政研究報告書》7, 1978)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관광지의 여건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觀光客을 수용하기 위한 物的 環境外에도 관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人的 環境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觀光從事員의 서비스자세와 주민들의 친절한 歡待精神은 매력있는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李文敎의 〈濟州觀光 이대로 좋은가: 接客業所의 觀光客에 대한 姿勢〉(《開發濟州》9, 1976), 吳英淑의 〈濟州道 觀光從事員의 職業觀에 대한 연구〉(《濟州大 教育大學院 碩士學

位論文》,1984), 徐庚林의 〈觀光環境의 先決條件: 社會教育을 통한 歡待資源의 함양〉(《濟州大學 論文集》11, 1980), 梁重海의 〈觀光開發을 위한 道民의 姿勢〉(《濟州市》5, 1967), 徐庚林의 〈全道民의 觀光要員化에 앞서〉(《開發濟州》56, 1976), 윤공석의 〈觀光客 誘致를 위한 南郡民의 姿勢〉(《南濟州》11, 1970) 등이 이루어졌다.

4) 觀光行政

觀光行政에 관한 연구는 본도관광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를 극소화하기 위한 지방행정 및 學校教育의 역할, 관광행정조직 및 관광지관리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방행정 및 학교교육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서 徐庚林의 〈觀光産業의 否定的 側面과 地方政府의 役割〉(《濟大學報》17, 1976), 梁重海의 〈觀光開發과 學校教育〉(《教育濟州》13, 1970), 韓昌榮의 〈觀光濟州와 學校教育〉(《濟州道》57, 1972), 徐庚林의 〈觀光行政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行政指導〉(《濟州道》, 1975) 등이 있었고 觀光行政組織에 관한 연구로서 金榮敦의 〈觀光提言: 組織的인 觀光機構의 設置를〉(《濟州道》51, 1971), 觀光地管理에 대한 연구로서 金太永의 〈萬丈窟 管理事業의 개선 및 民間委託管理 方案〉(《濟州專門大學 論文集》5, 1983), 강기원의 〈觀光地의 美化 및 管理에 대하여〉(《南濟州》14, 1970) 등이 이루어졌다.

5) 國際觀光 및 觀光宣傳

中文觀光地區가 1975년 국제관광지로 지정 개발할 것을 계획함에 따라 제주도의 국제관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본도의 국제관광지로서의 매력성, 개발방향 등에 대한 연구로서 梁宇鎭의 〈濟州觀光資源의 國際市場性〉(《濟州大學 論文集》6, 1976), 徐庚林의 〈國際觀光地로의 매력과 濟州道〉(《濟州道》76, 1979), 徐庚林의 〈國際化時代와 濟州道觀光開發의 方向〉(《世界平和教授協議會 濟州道支會 學術세미나 發表論文》, 1983), 김진온의 〈濟州道觀光地와 外國觀光地의 比較〉(《濟州道》50, 1971) 등이 이루어졌고 國際觀光客의 유치방안 및 관광선전에 관한 연구로서 夫萬根의 〈濟州道 觀光開發과 日本人觀光客 誘致方案〉(《濟州青年會議所 세미나 主題發表論文》, 1980), 玄成休의 〈觀光濟州의 Marketing Approach〉(《濟州專門大學 論文集》4, 1982), 姜勝勳의 〈濟

州道 觀光宣傳活動에 대한 提言》(《濟州道》 63, 1974) 등의 연구물이 있다.

6) 觀光地理

濟州道觀光에 대한 地理學的 연구는 宋成대의 〈濟州市의 觀光機能性에 대한 地理學的 考察：觀光產業을 中心으로〉(《濟州大學 論文集》 16, 1983), 金相昊의 〈濟州道の 潛在資源〉(《濟州道》 46, 1969), 洪承雲의 〈濟州道 觀光地域에 대한 地理學的 考察：觀光客과 誘致施設을 中心으로〉(《應用地理學》 4, 1978) 외에 觀光資源分布를 地理學的 분석에 의해 觀光空間構造와 그 특성을 종합적으로 구명한 宋成대의 〈觀光資源分布性向에 의한 濟州道の 地域別 觀光性〉(《濟州大學 論文集》 18, 1984)의 연구논문이 있다.

3. 전 망

이상에서 濟州道觀光에 대한 연구동향 및 분야별연구실태를 개관하여 보았는데 이를 요약하여 보면 1960년대는 地域開發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濟州觀光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文化財, 民俗 등 文化的 觀光資源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주도 개발의 戰略的 觀點에서 觀光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나 대부분 단편적이고 序說的인 연구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연구물들이 觀光개발 계획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이거나 행정지인 《제주도》誌를 통해서 발표된 연구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中央政府의 제주지역에 대한 觀光開發政策의 일환으로 혹은 地方行政方向의 모색과정으로 연구되었다.

1970년대는 1960년대보다 조사 및 연구영역이 확대, 細分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밀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①國立公園・指定觀光地の 指定告示, ②觀光開發計劃의 確定, ③濟州大學 및 濟州專門大學內 觀光學科의 설치, ④《제주도》誌 등 기관지 외에 《開發濟州》, 《月刊濟州》, 《濟州商工》 등의 종합 잡지의 발간, ⑤評價教授團 및 道政諮問委員會의 《道政研究 및 評價報告書》의 조사연구 등이 제주관광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研究內容은 초기에는 觀光개발의 방향, 종합개발계획, 관광시설 및 관광

사업의 진흥 등이, 후반기에 가서는 자연 및 문화자원의 보존, 관광개발과 道民所得과의 연계방안, 개발에의 참여방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80 년대에 와서는 제주관광에 대한 연구가 보다 발전되었는데 두드러진 특징의 첫째는 「觀光綜合開發計劃」의 추진성과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綜合開發計劃의 수립과정에서 제주도 관광 및 종합개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연구도 ①開發理念 및 目標의 再定立, ②觀光開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③觀光資源 및 觀光產業에 대한 實證的 分析, ④觀光客의 유치 및 宣傳 등의 분야에서 심화, 발전된 연구결과들이 나왔다. 둘째는 제주도와 國土開發研究院이 공동주최한 「濟州道 地域開發을 위한 開發學術會議」, 世界平和教授協議會 濟州道支會가 개최한 「國際化時代와 濟州道에 관한 學術세미나」 등도 제주지역의 종합개발 및 관광에 대한 연구의 열기를 더욱 높이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세째 《제주도》誌 외에 《國民觀光(I): 濟州道篇》, 《現代觀光學概論》, 《觀光學原論》 등 個人著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제주관광연구를 보다 심화·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가오는 80년대 후반기의 성숙기의 관광은 전국민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대중관광시대로 전환되어 國民保健休養과 社會福祉의 차원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의미까지 내포된 건전한 국민관광의 시대로 될 것은 필연적 사실이며, 또 국민각자의 餘暇善用과 레저(Leisure)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관광에 대한 인식은 더욱 새로와질 것이다.

따라서 本道는 「國土綜合開發計劃」상의 지역기능에서 감안해 볼 때 관광자원의 매력성을 증진시키고 관광산업 및 시설을 확충정비하며 觀光特産物, 觀光서비스의 수준을 강화하여 국내 및 국제관광지의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볼 때 제주도 관광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 틀림없으며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微視的 연구와 綜合的인 연구가 병행하여 더욱 심화 발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Ⅵ. 교 육 분 야

제주도의 教育關係研究는 1955년 12월 1일 제주제일고등학교 假校舍에 道教育研究所 임시 사무소를 개설하면서부터¹⁾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해방 이듬해인 1964년 8월 1일 本道가 道制로 行政機構가 승격을 보게 되어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을 高擡하게 될 學務行政이 確立되는가 했더니 1948년 4월 3일 4·3 폭동에 의한 본도 교육은 暗黒期에²⁾ 접어들게 되어 6·25 戰亂後 1954년까지 만 9년 동안 실적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8·15 해방 이후 西歐의 教育思潮는 우리 教育現場에 빠르고 강하게 침투해 왔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들의 것으로 소화해야 할 필연성이 대두되면서 教育研究를 전담할 기관이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濟州道教育研究所」가 설치되었고 본연구소 규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그 설치목적 밝히고 있다.³⁾ “研究所는 제주도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現職敎員의 再敎育 및 敎育의 理論과 實際를 研究・調査하여 敎育研究와 實際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와같은 목적에 따라 濟州道教育研究所가 濟州敎育研究의 시발점으로 하여 교육 연구풍토를 열고 조성하기 시작하여 50년대에는 5편의 연구에 불과하였던 것이 60년대에는 研究員들의 연구활동과 각급학교 교사들의 현장연구로 확산되어 129편에 이르렀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는 각 대학에서 研究論文集을 발간하게 되어 384편이라는 엄청난 증가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각종 研究物들이 散發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研究內容의 중복 또는 연구방향 설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耽羅文化研究所에서는 해방후 각분야에 걸친 濟州研究를 綜合的으로 概

1) 濟州道敎育史編纂委員會, 「濟州敎育史」, 濟州道 敎育委員會, 1979, p.450.

2) 「上揭書」, pp.113 ~ 116.

3) 「上揭書」, pp.450 ~ 451.

觀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본고 역시 이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여러 곳에서 발표되었던 濟州道關係 教育研究들을 수집・정리하여 濟州道教育研究의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문제점들을 추출하고 앞으로의 교육연구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濟州道教育研究의 合理性과 效率性을 증대 시킴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본연구는 해방후부터 1983 년도까지 이루어진 教育研究중 ‘濟州道地域社會 및 그 所屬員’과 관계가 있는 교육 연구물 총 786 편을 分析의 대상으로 삼았고 研究論文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연구물들은 分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고는 濟州教育研究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分析, 概觀하였는 바,

첫째는 제주도 교육연구의 主流를 考察하였고

둘째는 제주도 교육연구들을 수록한 관계문헌들을 발행기관별로 分析하였으며

세째는 연도별로 濟州教育研究의 특징을 살펴보고

네째로는 研究領域別로 제주도 교육연구의 동향을 파악,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濟州道教育研究에 대한 展望과 課題를 제시하였으며 부록에는 제주도 교육과 관련된 786 편의 연구물들을 기관별, 게재지별 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1. 濟州道教育研究의 主流

1) 《研修》誌와 《研究報告書》

1955년 12월 1일 濟州道教育研究所가 開所되면서 연구소의 첫째사업이 「敎員研修」로서 이는 일제교육의 잔재를 뿌리 뽑고, 民主理念에 입각한 民主市民教育의 실천과 統一再建教育의 실시라는 막중한 사명을 완수해야 할 敎師들에게 자신감과 의무감을 불어 넣고 교육의 이론 및 기술의 습득없이 現場改善을 이룰 수 없다는 現實的인 要求로 나타난 것이다. 敎員研修에 중점을 둔 연구소 운영은 1956년 1월 1일 創刊號로 《研修》誌 발간을 시초로 〈校長 評價基準에 대한 研究〉(1956), 〈學校保健環境 審査基準에 대한 研究〉(1957), 〈中・高等學校 特活評價 基準에 대한 研究〉(1958) 등 研究의 대부분이 「評價基準」

에 한정된 연구들뿐이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教師實態調查研究〉(1960), 〈鄉土學校 教育課程의 實踐方案에 대한 研究〉(1962), 그리고 〈孤立兒實態調査 및 親子關係調査〉(1963)로서 研究領域을 넓히어 나가고 있다.⁴⁾ 《研修》誌가 1969년 제 59호에 이르는 동안 제주도 교육의 實態調査와 아울러 實踐方案 제시가 濟州教育 情報提供뿐만 아니라 教育行政이나 濟州教育現場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논문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미흡하였으나 《研修》 57호 (1968.6)부터 논문의 성격으로 바뀌어 專門職으로서의 研究活動이 활발하다가 1970년부터 《研究報告書》(60호)로 改題되어 1976년까지 專門職의 研究物만 掲載하게 됨으로써 논문의 성격을 띤 연구활동이 시작되게 되었다.

2) 《現場研究教師研究報告書》

現場研究教師制는 1962년에 시행되었던 現職研究員制에서 그 根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現職研究員制는 학교마다 교육연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으나 研究論文集이 없어 研究內容을 알 수가 없으므로 이의 整理・保存의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1977년 4월 4일 제 1차 現場研究教師協議會를 개최함으로써 現場研究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研究領域으로는 「教科別, 教職活動別」 전 영역에 걸쳐 시행되었는 바, 「교과별 연구영역」으로는 국어 교육, 수학교육, 사회교육, 영어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과학교육, 실업교육, 미술교육, 가정교육 등 10개 영역으로 나뉘었고, 「교직별 영역」으로는 교육평가, 생활지도, 반공도덕교육, 특별활동, 새마을, 교육방법, 교육행정, 교직생활, 교육분과 등 9개 연구영역으로 구분, 學校現場改善에 크게 기여하였다.

現場研究教師의 年度別, 研究領域別 研究動向은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7년부터 82년까지 16개 領域에 걸쳐 90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教科別 研究領域으로는 體育教育이 으뜸이며 (8.9%), 教職別 研究領域에서는 特別活動이 11편 (12.2%)으로서 가장 높고 다음이 生活指導가 10편 (11.1%)으로 매년마다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4) 濟州道教育研究所, 「教育研究所 實績概要」, 1968, pp. 35 ~ 37.

〈表 1〉현장연구교사의 연도별·연구영역별 연구동향

연도별 연구영역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계 (%)
국 어 교 육	1			2		2	5 (5.6)
수 학 교 육	2		1		2	2	7 (7.8)
사 회 교 육				1		1	2 (2.2)
영 어 교 육	1	2		3	1		7 (7.8)
체 육 교 육		2			4	2	8 (8.9)
음 악 교 육				1	2	2	5 (5.6)
과 학 교 육	1			2	1	1	5 (5.6)
실 업 교 육			1	1	1		3 (3.3)
미 술 교 육	1				2	3	6 (6.7)
가 정 교 육							
한 문 교 육				1			1 (1.1)
교 육 평 가		1		1	1		3 (3.3)
생 활 지 도	1	2	1	3	1	2	10(11.1)
반 공 도 덕	2	2			2	1	7 (7.8)
특 별 활 동	1	1	3	1	3	2	11(12.2)
새 마 을 교 육							
교 육 방 법	2	1	2	1	1	1	8 (8.9)
교 육 행 정		1	1				2 (2.2)
교 직 생 활							
계	12	12	9	17	21	19	90 (100.0)

3) 《研究學校 綜合研究報告書》

본도에 연구학교가 지정된 것은 1951년 제주제일중학교가 그嚆矢로서 「特別活動」 영역의 연구를 지정받았으나 6·25 동란의 영향과 학교 여건의 불비로 1956년에야 연구공개가 되었다. 濟州第一中學校의 研究公開에 앞서 1955년 3월에 한림국민학교(도지정)의 〈道義教育과 學習指導法〉이, 동년 10월에는 제주북국민학교(문교부 지정)의 〈道義生活과 學習指導〉가 公開되었다.⁵⁾ 연구

5) 濟州道教育史編纂委員會, 「前掲書」, p.454.

학교의 연구주제에 있어서도 연도별로 특색을 나타내고 있어서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년도까지는 「道義教育」에 중점을 두었고 50년대 후반부터는 科學教育, 學習指導, 國語 및 實業教育 등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60년대부

<表2> 연구학교의 학교급별·연도별·영역별 연구동향

영역별	학교급별 연도별	국 민 학 교								중		
		51 ~55	56 ~60	61 ~65	66 ~70	71 ~75	76 ~80	81 ~83	계	51 ~55	56 ~60	61 ~65
급	식			1		3	1		5			
향	토 학 교			2					2			
시	청 각 교 육			3	3	2			8			1
과	학 교 육		1	1	4	5	2		13			
체	육			1	1	7	5	4	18			1
예	능					4	1	1	6			
생	활 지 도			1	1	3			5			
새	마 을			1		2	2	1	6			1
국	어		1		4		1		6			1
교	육 헌 장				3				3			
반	공 도 덕	2			1	3			6			
교	육 과 정					1			1			
사	회				1	1	1		3			
학	교 경 영				2		1	3	6			
자	유 학 습					2			2			
자	활 학 교				1	1			2			
국	사					3	3		6			
특	활					1	1		2	1		
학	습 지 도		1	1			5	1	8			
수	학			4		1			5			
가	정											
실	업		1	1					2			
교	련											
외	국 어											
계		2	4	16	21	39	23	10	115	1		4

터는 연구영역을 점차 확대시켜 가면서 研究學校 연구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15개교의 국민학교가 21개 영역을 지정받아 연구를 했으며, 48개교 중학

학 교					고 등 학 교								총 계
66 ~70	71 ~75	76 ~80	81 ~83	계	51 ~55	56 ~60	61 ~65	66 ~70	71 ~75	76 ~80	81 ~83	계	
													5(2.2)
													2(0.9)
	1			2					1			1	11(4.8)
1	2			3				1	4			5	21(9.1)
1	4	2	1	9			3				2	5	32(13.9)
													6(2.6)
								1		1	1	3	8(3.5)
	1	1	1	4				8	3	1	1	13	23(10.0)
		2		3				1				1	10(4.3)
1	1			2									5(2.2)
1	2	2	1	6						2		2	14(6.1)
	1			1									2(0.9)
	1			1									4(1.7)
1		1		2							2	2	10(4.3)
													2(0.9)
1				1									3(1.3)
													6(2.6)
1	1			3					1		1	2	7(3.0)
		2		2			1			1		2	12(5.2)
2	2	1		5						1		1	11(4.8)
	1			1				3	2	1		6	7(3.0)
		1	1	2			1	4	4	2	1	12	16(6.9)
								1	7	3		11	11(4.8)
		1		1						1		1	2(0.9)
9	17	13	4	48			5	19	22	13	8	67	230(100.0)

교가 16개의 영역, 67개교 고등학교가 15개의 영역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모두 24개 영역에 걸쳐 230개교가 研究學校로서 연구물을 製作, 發表하였다. 가장 많은 연구영역으로는 體育領域이 32개교로 가장 많은 연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3.9%), 다음이 새마을교육으로 23개교 운영 (10.0%) 그 다음이 과학교육으로 21개교 (9.1%) 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研修》誌와 《現場研究教師研究報告書》, 그리고 《研究學校綜合研究報告書》에서 발표된 濟州道教育研究는 해방후 83년에 이르는 동안 전체 연구의 약 43%를 점하고 있어서 연구를 통한 제주도 教育發展에 主流를 이루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2. 濟州道教育研究들을 수록한 關係文獻分析

본고에서 分析하고자 하는 786편의 논문들은 單行本 몇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各機關에서 발행하는 문헌들에 포함된 것들이다. 따라서 濟州道教育研究 論文의 源泉을 파악하는 것은 研究物들의 소재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는 綜合收錄 論著, < >는 單一論文, 『 』는 統合된 文獻임)

① 濟州道教育研究所

《研修》 1956(제1호) ~ 1969(제59호)

② 濟州道教育研究院

《研究報告書》 1970(제60호) ~ 1976(제66호)

《現場研究教師研究報告書》 1977(제1집) ~ 1982(6집)

《研究學校研究報告書》 1953 ~ 1969

《研究學校綜合研究報告書》 1970 ~ 1983

《教育研究論文集》 1982(제1집) ~ 1983(제2집)

《中・高等學生들의 生活指導改善에 關한 研究》 1978

《學生事案의 豫防과 指導》 1982

『濟州教育通史』 1974

『教育指導事例集』 1980 (제 1 집) ~ 1983 (제 4 집)

『옛 제주의 民俗, 歲時風俗, 民謠』(產育, 育成篇) 1984

③ 濟州道教育會

『教育濟州』 1956 (제 1 호) ~ 1966 (제 14 호)

《現場教育研究報告書》 1974 ~ 1983

④ 濟州道教育委員會

『教育濟州』 1967 (제 1 호) ~ 1983 (제 52 호)

『濟州市教育』 1972 (제 1 호), 1974 (제 2 호)

『北濟州教育』 1967 (제 1 호) ~ 1971 (제 5 호)

『濟州教育』 1968 ~ 1971

『濟州教育史』 1979

『濟州教育要覽』 1970 ~ 1972

『濟州教育統計年報』 1969 (제 1 권) ~ 1983 (제 15 권)

『現行濟州道教育自治法規集』 1984

⑤ 濟州道學生科學館

『濟州科學』 1979 (제 1 호) ~ 1983 (제 5 호)

⑥ 大韓教育聯合會

《教育研究報告書》 1952 (제 1 집) ~ 1983 (제 27 집)

⑦ 濟州道廳

『제주도』 1962 (제 1 호) ~ 1980 (제 77 호)

『濟州道誌』(教育·文化篇) 1982

⑧ 各大學院

⑦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강학에 대한 역할지각 및 기대의 차가 장학행위에 미치는 영향〉 金哲秀 (1981)

〈學校規模에 따른 학교장의 指導性 類型에 관한 研究〉 康禎殷 (1981)

〈獎學士의 장학지도에 대한 교사의 知覺 및 役割期待의 차에 관한 研究〉 邊文燦 (1981)

〈학교조직의 體制類型과 교사사기에 관한 조사연구〉 金喆虎 (1982)

- 〈全人的 成長을 위한 고등학교 클럽 활동의 改善方案 探索〉 金昌郁(1982)
- 〈科學教育課程運營을 위한 行政支援體制 研究〉 金應杓(1982)
- 〈學級集團의 性格特性에 관한 分析的 研究〉 姜龍範(1982)
- 〈學校長의 의사결정유형과 學校組織健康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李泰正(1982)
- 〈제주도 중·고등학생의 統一安保意識에 관한 조사연구〉 金致洪(1983)
- 〈중등학교 국민윤리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제주도국민윤리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康宗炫(1983)
- 〈학교장의 學校行政機能과 教師의 役割에 관한 연구〉 姜致孝(1983)
- 〈幼兒教育을 위한 어머니의 役割遂行에 관한 연구〉 文敬嫻(1983)
- 〈幼稚園教育의 運營改善方案 探索〉 朴性哲(1983)
- ㉠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學父兄의 教育價值觀에 관한 研究 : 제주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高永芳(1977)
- 〈運動學生에 대한 一般社會의 認識度에 관한 연구〉 金正三(1977)
- 〈學級 擔任教師의 指導效果에 관한 研究〉 權京鐵(1977)
- 〈濟州大學生의 價值觀에 관한 연구〉 高明奎(1977)
- 〈兩親의 子女에 대한 態度에 관한 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姜昌赫(1977)
- 〈中等敎員의 敎職觀에 관한 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高應三(1977)
- 〈農村住民의 子女敎育觀에 관한 研究: 제주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金奉五(1977)
- 〈教育財政彈力性에 관한 研究: 제주도를 중심으로〉 玄商五(1977)
- 〈濟州道敎育財政에 관한 考察〉 洪雅三(1976)
- 〈濟州道 學校敎育의 發展過程에 관한 歷史的 研究〉 金大鉉(1978)
- ㉡ 高麗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濟州의 鄉土敎育의 史的考察〉 康錫奎(1977)
- 〈專門學校學生의 價值觀에 관한 調查研究〉 李奉憲(1977)
- 〈婚姻法制 現代化에 대한 韓國靑少年의 態度調查研究: 제주지역 고교생의

의식실태 분석》宋尙舜(1977)

〈學校長의 指導性과 學校組織風土와의 關係: 제주도 中等학교를 중심으로〉
左奉用(1971)

㉒ 기타 大學院

〈地域社會開發過程에서 教育의 役割에 관한 研究: 제주도 지역사회 중심
으로〉延大敎大院, 梁益哲(1977)

〈郷土意識에 관한 分析的 研究: 제주도 中等학교 학생을 중심으로〉吳和
男(1976)

⑨ 各級學校論文集 및 關係文獻

濟州大學校《論文集》 1969(제1집)~1983(제16집)

濟大敎養學部《論文集》 1972(제1집)~1974(제3집)

《學生生活研究》濟大學生生活研究所, 1971(1)~1976(4), 1982(5)~1983
(6)

《濟研》濟大濟州道問題研究會, 1974(1)~1976(3)

『濟大學報』濟大學徒護國團, 1957(제1집)~1983(제23집)

濟州教育大學《論文集》 1970(제1집)~1983(제13집)

《科學教育研究誌》濟州教育大學 科學教育研究所, 1976(제1집)~1983
(제7집)

〈濟州道 初等學校의 自然科教育實態調査〉濟州敎大 金英昊外(1976)

濟州專門大學《論文集》 1976(제1집)~1983(제5집)

濟州看護專門大學《論文集》 1975(제1집)~1983(제9집)

濟州商業高等學校《論文集》教育研究會, 1976(제1집)~1983(제13집)

濟州教育大學附屬國民學校《現場教育研究》 1975(1), 1978(2), 1983(3)

濟州道 國語教育研究會《國語教育研究》 1970(1)~1972(2)

濟州道 中等數學教育研究會《數學教育研究》 1973(1)

濟州道 英語教育研究會《英語教育研究》 1968(1)~1972(3)

⑩ 기타

『光復濟州 30年』夫萬根(1975)

〈濟州道 郷土學校 諸問題에 관한 研究: 제주도 향토학교 연구답사보고서〉

徐明源 (1962)

3. 年度別로 본 濟州教育研究의 特徵

1) 年度別 研究對象의 特徵

연도별로 濟州教育研究의 연구대상동향을 보면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60년대에는 거의 국민학교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학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으로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두드러진 현상은 본도 幼兒와 特殊兒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논문은 8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본도 幼兒教育과 特殊教育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초·중고교 및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60년대에서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은 70년대에서부터 점증하고 있다.

<表 3> 연도별 연구대상

연도별 연구대상별	I		II		III		IV	계
	45~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3	
유 아							10	10 (1.3)
국 교	1	3	9	36	88	71	144	352 (44.8)
중 고 교		1	6	42	59	67	83	258 (32.8)
대 학			2	1	6	9	22	40 (5.1)
특 수 아					1	1	3	5 (0.6)
기 타			9	24	34	48	6	121 (15.4)
계	1	4	26	103	188	196	268	786 (100.0)

2) 年度別 研究性格의 特徵

〈表 4〉는 연도별 제주교육의 연구성격 동향을 나타낸 것으로서 60년대 이전에는 機關研究만 하다가 60년대 이후부터 개인 연구활동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관연구는 70년대 전반기를 기점으로 하여 점점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연구(61.6%)가 기관연구(36.4%)보다 倍增현상을 보이고 있다.

· 〈表 4〉 연도별 연구성격

연도별	I		II		III		IV	계
개인공동연구별	45~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3	
개 인 연 구			13	51	78	130	212	484 (61.6)
공 동 { 기 관 2~3인	1	4	13	51	105	62	50	286 (36.4)
				1	5	4	6	16 (2.0)
계	1	4	26	103	188	196	268	786 (100.0)

3) 年度別 研究方法의 特徵

연구방법의 類型別 動向을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년대에는 現場研究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60년대부터 세가지 방법이 공히 사용되고 있다. 교육실천의 개선을 위하여 現場教師가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調査・實驗, 實踐의 성격을 띤 「現場研究」는⁶⁾ 계속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문헌에 기초를 둔 철학적, 역사적 성격의 「理論的 研究」는⁷⁾ 60~70년대의 전·후반기에 따라 달리하고 있으며 현장연구를 제외한 도구를 통하여 교육현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調査的 性格의 연구인 「調査研究」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濟州教育研究는 學校現場改善을 목적으로 하는 現場研究方法가 가장 많음(61.8%)을 보여주고 있다.

6) 金宗西, 「教育研究의 方法」, 培英社, 1980, p.22.

7) 上揭書, pp.16 ~ 17.

〈表 5〉연도별 연구방법

연도별 연구방법별	I		II		III		IV	계
	45~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3	
현 장 연 구	1	4	13	54	126	104	184	486 (61.8)
이 론 적 연 구			12	32	15	28	17	104 (13.2)
조 사 연 구			1	17	47	64	67	196 (25.0)
계	1 (0.1)	4 (0.5)	26 (2.3)	103 (13.2)	188 (23.9)	196 (24.9)	268 (34.1)	786 (100.0)

4. 研究領域別로 본 濟州教育研究動向

1) 教職領域別 研究動向

연구영역을 大別하면 教職領域과 教科領域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먼저 教職領域別로 교육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304개의 연구영역중 教育方法에 관한 연구가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35.5%). 教育方法은 生活指導와 學習指導 측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80년대에서부터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教育行・財政領域(16.8%)으로서 학교 및 학급경영과 組織風土와 관련된 연구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教育課程을 제주도 특수사정에 적용시키는 노력과 제주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사회적 성격을 띤 연구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이 요청된다.

〈表 6〉 교직영역별 연구동향

연도별 교직영역별	I		II		III		IV	계
	45~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3	
교사·교육일반	—	—	3	7	11	18	14	53 (17.4)
교육사·철학	—	—		1	2	10	6	19 (6.3)
교육심리	—	—			7	11	8	26 (8.6)
교육사회	—	—	3	5	2	5	2	17 (5.6)
교육과정	—	—		2	2	2	1	7 (2.3)
교육방법	—	—	4	10	26	26	42	108 (35.5)
교육공학	—	—		5	15	1	2	23 (7.5)
교육행·재정	—	—	5	10	7	9	20	51 (16.8)
계	0	0	15	40	72	82	95	304 (100.0)

2) 教科領域別 研究動向

〈表 7〉은 教科領域別 研究動向을 나타낸 것으로서 藝·體能系 教科領域이 22.6%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70년대 후반기부터 예·체능계 연구활동이 점증되어 80년대부터는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다른 교과영역들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實科·實業教科는 60년대 후반기를 정점으로 연구활동이 점점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表 7〉 교과영역 연구동향

연도별 교과영역별	I		II		III		IV	계
	45~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3	
반공·도덕생 활·국민정신		2		4	16	17	22	61 (12.7)
국 어			3	12	13	6	21	55 (11.4)
산 수·수 학			1	4	6	8	10	29 (6.0)
사 회·국 사				2	3	10	10	25 (5.2)
자 연·과 학			1	6	13	10	18	48 (10.0)
외 국 어				1	2	4	4	11 (2.3)
예 능·체 능			6	4	24	29	46	109 (22.6)
실 과·실 업		1		14	13	11	9	48 (10.0)
특 활	1	1		4	12	8	11	37 (7.7)
새 마 을				8	9	9	15	41 (8.5)
성 교 육						2	4	6 (1.2)
국 민 교육 현 장				2	2			4 (0.8)
기 타 { 도서관 { 급 식				2	3		3	8 (1.6)
계	1	4	11	63	116	114	173	482 (100.0)

3) 敎職・敎科別 研究動向

敎職・敎科別研究를 綜合해 볼 때 <表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敎科에 관한 연구활동(61.3%)이 敎職에 관한 연구(38.7%)보다 많이 이루어지고있다.

<表 8> 敎職・敎科別 研究動向

연도별 敎職敎科영역별	Ⅰ		Ⅱ		Ⅲ		Ⅳ	계
	45~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3	
敎 職			15	40	72	82	95	304 (38.7)
敎 科	1	4	11	63	116	114	173	482 (61.3)
계	1	4	26	103	188	196	268	786 (100.0)

5. 展望과 課題

지금까지 濟州도의 敎育연구에 대하여 ① 初期研究活動과 主流를 고찰해 보았으며, ② 濟州敎育研究들을 수록한 관계문헌들을 발행기관별로 분석하였고, ③ 濟州敎育研究를 연도별로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研究領域別로 濟州道敎育研究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와같은 내용들을 綜合적으로 分析해 볼 때 濟州敎育研究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 (1) 1951 ~ 道・文敎指定研究學校 <研究報告書> 製作・發表
- (2) 1955 ~ 濟州道敎育研究所의 《研修》誌를 통해 濟州敎育정보제 공과 研究 風土造成
- (3) 1957 ~ 濟州大學의 《濟大學報》를 통해 敎수 학생들의 論文發表
- (4) 1962 ~ 《濟州道》에 各계各층의 全領域에 걸친 論壇 특별기고 발표
- (5) 1967 ~ 濟州道敎委會의 《敎育濟州》에 論文, 특집, 연구보고, 조사연구 발표

- (6) 1967 ~ 濟州商高教育研究會의 《論文集》에 재직교사들의 研究發表
- (7) 1969 ~ 濟州大學의 《論文集》에 교수논문 발표
- (8) 1980 ~ 教育研究院의 《研究報告書》와 《研究學校綜合研究報告書》에 전문
직의 연구논문과 문교 및 도지정연구학교 연구논문 발표
- (9) 1970 ~ 濟州教育大學 《論文集》에 교수논문 발표
- (10) 1970 ~ 濟州道教育會 《現場教育研究報告書》에 現場教師 研究發表
- (11) 1971 ~ 濟州大學生生活研究所 《學生生活研究》에 교수논문 발표
- (12) 1975 ~ 濟州看護專門大學 《論文集》에 교수논문 발표
- (13) 1975 ~ 濟州教大附國 《現場教育研究》에 재직교사 研究發表
- (14) 1976 ~ 濟州專門大學 《論文集》에 교수논문 발표
- (15) 1976 ~ 濟州教大 《科學教育研究誌》에 교수논문 발표
- (16) 1977 ~ 東國大學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發表
- (17) 1977 ~ 教育研究院 《現場研究教師研究報告書》에 研究發表
- (18) 1979 ~ 濟州道學生科學館 《濟州科學》에 專門職 研究發表
- (19) 1981 ~ 濟大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發表
- (20) 1982 ~ 教育研究院 《教育研究論文集》에 專門職 研究發表

이 상과 같은 濟州教育研究의 흐름은 學校現場에서부터 시작하여 專門研究機關과 大學機關을 망라한 활동으로 오늘까지 계속되어 제주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날로 변천하는 제주도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濟州教育發展을 위해서 보다 體系的이고 合理的인 研究遂行을 위해서 濟州教育研究의 展望과 解決해야 할 課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研究內容의 側面에서

연구는 제주교육을 형성하는 구조적인 전체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형이 흔들려 교육의 효과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앞에서 研究領域別 研究活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教科領域과 教職領域間 연구활동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뿐만아니라 教職領域內에 있어서도 제주지역사회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내용의 선정과 교육방법의 다양화에 관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教科領域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영역간 균형 있는 연구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特別活動은 學校教育活動의 매우 중요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내용에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은, 앞으로 情意的 領域의 研究活動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사점을 주고 있다. 濟州教育의 均衡있는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全領域에 걸친 연구활동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研究對象側面에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의 대부분이 초·중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은 학교라는 형식적기관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어 그곳을 떠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學校機關 이전,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平生教育의 概念으로 이해되고 있다. 더우기 幼兒教育의 필요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심각성 절박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濟州에도 幼兒教育機關이 84년 10월 현재 164교에 幼兒가 9,140명에 이르고 있어서 계속 팽창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발생의 미연방지와 特殊教育의 발전을 위해 本道에 있는 特殊兒를 중심으로 特殊教育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아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이미 발생한 장애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그 장애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곧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研究風土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단계 중 가장 낙후된 영역인 幼兒教育和 特殊教育에 대한 研究意識이 새로운 차원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研究支援의 側面에서

교육연구는 제주교육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教育研究院이 제주도교육연구의 선도적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人的·財政的 支援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도내 3,700여명에 이르는 초·중등 교사 모두에게 教育活動의 全過程에서 올바른 現場研究의 자세와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일선교사들이 당면하는 교육문제의 合理的인 解決을 위한 노력들의 결정체를 수시로 발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아울러 정기적인 논문집을 발간, 활

용하게 될 때 제주도의 특수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 향상을 꾀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연구자적 자세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연구의 풍토가 조속히 실현될 것이다.

VII. 結 論

이제까지 분야별로 논의된 바, 社會科學分野의 조사연구경향을 간추려 요약해 본다.

1. 社會・人類學分野

(가) 社會學 및 人類學分野의 경우 해방후 60년대까지는 民族誌的 研究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女性 또는 海女の 연구도 이루어졌다.

(나) 70년대 전반에서부터 社會學, 人類學 分野의 연구경향은 家族(또는 親族)・傳統(또는 基層) 文化・人口 등으로 다양화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르는 가운데 70년대 후반 제주대학교에 관련학과가 설치됨에 따라 사회학(또는 인류학) 연구는 深化되어 나갔다. 親族・社會意識・女性 등의 논의가 특히 활발한 가운데, 70년대 후반에 있어서의 각종 조사보고서 출간은 제주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78년의 제주도연구회 결성과 79년의 탐라정신 탐구세미나 등에서도 연구의 深化過程을 엿볼 수 있다.

(다) 80년대에 들어서자 제주도 家族・親族構造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연구영역의 확대 및 다양화는 제주연구를 더욱 活性化시켰다. 곧 그 과제가 가족・친족의 단위에서 도시를 포함한 地域社會의 여러 현상으로 뻗어나가면서 기층문화・도민의식뿐만 아니라 해외교포문제까지 연구 범위가 넓혀졌다. 연구과제의 이러한 擴大 및 深化는 人口・女性・社會福祉 등의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다.

(라) 앞으로의 社會・人類學分野의 연구는 그 목표를 ‘제주도학’ 정립모색

에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先功業績을 바탕으로 학문간의 협동연구가 요구된다. 제주연구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계속 남아 있다. 가족·친족의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基層文化와 社會構造에 대한 견해차이, 제주연구영역의 학문간 경계선 등이 그것이다.

2. 法政分野

(가) 제주지역 法政分野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초반, 政治나 法學分野에서 보다는 行政分野에서 먼저 일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政治狀況 및 法學에 대한 관심이 中央舞臺를 중심으로 展開되어 제주지역 연구의 關心度가 낮았기 때문이다. 우선 政治分野에서는 選舉時의 資料를 整理한 《歷代公職者選舉實施狀況》(1965)이 간행되고, 安保에 관한 序說的 性格의 글이 두어편 보인다. 法學分野에서는 入漁慣行과 民事慣行이 主流를 이루는데, 入漁慣行의 경우 入漁權 문제, 民事慣行의 경우 蓄妾, 刑事法分野의 논의가 몇편 드러날 뿐이다. 行政分野에서는 《제주도》 등 行政誌의 간행으로 다른 社會科學分野에 비해 量的·質的으로 압도적인 편이다. 그 연구영역을 보면 觀光開發에 있어서의 行政의 기능을 비롯해서 產業行政, 中山間 產業基盤 造成對策 및 行政區域의 改編問題 등에 집중되었다.

(나) 1970년대에 이르러 그 研究熱은 한층 高調된다. 곧 夫萬根의 《光復濟州 30年》(1975)에서는 제주도의 行政·社會 30년(1945-75)이 임체적으로 鳥瞰되었으며 도민의 投票形態를 분석하거나 濟州道の 安保를 東北亞 情勢와 관련하여 다룬 글이 나타난다. 法學分野에서도 海女, 事後婚, 養子制度, 民事法 및 刑事法 등에 뻗침으로써 60년대에 비해 研究領域이 확대되고 있다. 研究領域의 확대 및 細分化가 行政分野에서는 政治나 法學分野에 비해 더욱 심하다. 綜合開發에 관한 연구는 開發을 위한 行政의 기능, 開發에의 道民參與方案, 觀光開發과 道民所得의 연계방안 등으로 細分化되어 갔다. 그런가 하면 環境保全에 관한 行政的 研究가 새마을운동과 연결되어 이루어졌고 연구경향에 있어서도 官學協同의인 研究, 地域行政에 대한 共同調查研究의 빈도가 높다. 또한 地域行政을 素材로 한 學位論文들과 行政에 관한 몇종의 자료집도 드러나기 시

작했다.

(다) 1980 년대에 이르러 法政研究도 점차 深化되어 간다. 政治分野에서는 《濟州道誌(上)》(1982)에서 濟州道の 政治形態, 政黨活動, 選舉狀況에 걸쳐 논의되었고 단행본으로 《濟州道選舉史》가 刊行되었다. 또한 統一安保意識에 관한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法學分野에서는 海女漁場紛糾 및 民事慣習에 대한 작업들이 드러난다. 行政分野에서는 地域行政에 대한 研究가 深化되어 가는데 綜合開發分野에 집중되는 경향이며 邑面單位の 綜合開發에 대한 연구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들어 1970 년대 후반부터 관심이 약해졌던 產業政策에 관한 연구가 다시 活性化되어 간다.

3. 産業・經濟分野

(가) 제주지역 산업·경제에 대한 논의는 60 년대의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시행과 발맞추어 태동했다. 60 년대에는 주로 지역경제의 현황과 그 構造的 問題點들이 거론되었다. 70 년대에 들어와서는 지역경제의 성장에 대한 推進力 및 성장지속을 위한 政策 등이 연구되었고, 또 特化産業의 육성이 논의 되기도 하였다.

(나) 産業分野에서는 구조적 문제점 및 特用作物에 대한 논의가 60 년대에 진행되었고, 70 년대에 그 구체적 育成方案이 다루어졌다. 본도의 GNP상승의 主要因인 柑橘에 대한 논의는 60 년대에 이의 增産에 역점 두다가, 70 년대에 이르러 증산정책의 비판 및 유통정책에 집중되었다. 80 년대에 와서는 과잉생산에 따른 소비촉진책과 代替生果의 생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다) 畜産分野는 60 년대에 그 육성책이 논의되었지만 70 년대에도 축산진흥의 필요성 정도가 논의되는 등, 그 연구경향이 낙후성을 보인다. 이는 道支援策의 미흡과 企業的 畜産에 따른 막대한 자금소요의 비판적 측면에서 말미암았고 소규모의 複合營農에 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養蠶에 대한 논의가 60 년대 중반에서 70 년대 중반에 걸쳐 이루어졌었으나, 타산업과의 수익 비교에서 열등한 편이었다.

(라) 水産分野는 60 년대에 現況・振興의 問題, 漁業前進基地 등의 연구가

대종을 이루었고, 70 년대에 養殖漁業 및 流通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마) 製造分野는 1969 년 제주도 企業經營研究所가 설립되면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70 년대에 中小製造業의 經營合理化, 特化產業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바) 輸出에 관하여는 60 년대에 自由地域의 문제와 農水產物의 수출이 논의되었고, 70 년대에 水產物, 80 년대에 菜蔬類의 수출에 관해 연구되었다.

(사) 새마을사업은 60 년대 지역개발계획과 발맞추어 식량작물·경제작물의 증산이 거론되었고, 70 년대와 80 년대에 잇따라 特用作物의 재배와 複合營農으로서 지역개발계획에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아) 앞으로의 산업·경제연구에서 지역경제개발은 그 산업구조의 분석과 부존 및 잠재자원의 현황과 개발가능성을 검토한 뒤, 불균형이 없도록 골고루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경제 전체와의 연관성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農水產業은 노동생산성과 고용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육성하며 가공처리와 판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연구가 요구된다. 製造業은 위의 가공처리를 고려하며 無公害產業을 육성하고, 동시에 인력자원개발과의 관련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觀光分野

(가) 제주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논의는 地域開發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1960 년대에 일기 시작하였다. 다만 당시에는 文化財, 民俗 등에 대한 資源化方案에 집중되었고 제주도 개발을 위한 戰略的 觀點에서 斷片的 序說的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글들이 觀光開發計劃에 따른 조사연구보고서이거나 行政誌인 《제주도》에 발표된 것이 主流를 이루고 있어서 多분히 論說의 성격을 띠었다.

(나) 1970 년대에 이르러 濟州觀光에 대한 연구는 본궤도에 올라섰다. 濟州大學校 및 濟州專門大學에 觀光學科가 설치되었음은 觀光研究를 학문의 세계로 이끌어 올리는 데 결정적인 기틀이 되었다. 더구나 몇 대학에서의 대학논문집 발간은 그 연구를 본격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는 ①國立公園, 指定觀光地의 指定告示, ②觀光開發計劃의 確定, ③行政誌인 《제주도》 외에 《開發濟州》, 《月刊濟州》, 《濟州商工》 등 정기간행물의 續出에 따른 발표지면의 확대, ④道政評價敎授團 및 道政諮問委員會에 따른 《道政研究 및 評價報告書》의 발간 등 주변여건 역시 제주관광에 대한 연구를 촉진케 한 것으로 보인다.

70년대초에는 觀光開發의 方向, 綜合開發計劃에 대한 논의 등 포괄적인 성격을 띠었었으나 70년대말에 이르면서 自然 및 文化資源의 保存, 觀光開發과 道民所得과의 連繫方案 등이 主流를 이루었다.

(다) 80년대에 이르러 제주관광에 대한 연구는 더욱 深化되어 간다. 곧 濟州道 綜合開發計劃의 추진을 둘러싼 비판과 새로운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는가 하면, 관광개발을 주제로 한 각종 학술회의도 빈번히 개최되어 간다. 또한 관광연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본격화시킨 저서 몇권이 출판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5. 敎育分野

(가) 제주지역 교육에 대한 연구는 50년대에 싹트기 시작하여 6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1953년부터 《研究學校研究報告書》가 간행되기 비롯했고 1956년 濟州道敎育研究所에서는 《研修》를, 濟州道敎育會에서는 《敎育濟州》를 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교육에 대한 논의는 機關研究로서 대부분이 국민학교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現場中心의 연구였다. 그러던 것이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주도 행정지인 《제주도》(1962), 濟州道敎育委員會의 《敎育濟州》(1967), 濟州商高의 《論文集》(1967), 濟州大學의 《論文集》(1969) 등이 각각 간행되기 시작함으로써 個人研究活動이 자리를 굳혀 갔다. 연구영역은 다양해서 現場研究는 물론이요 理論的 研究에도 광범하게 뻗어 갔다.

(나)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敎育研究院의 《研究報告書》와 《研究學校綜合研究報告書》(1970), 濟州敎育大學의 《論文集》(1970), 濟州道敎育會의 《現場敎育研究報告書》(1970), 濟州大學 學生生活研究所의 《學生生活研究》(1971), 濟

州看護專門大學의 《論文集》(1975), 濟州專門大學의 《論文集》(1976), 教育研究院의 《現場研究教師研究報告書》(1977) 등 술한 논문집과 보고서가 간행되기 시작하는데 1970년대 전반기를 기점으로 하여 機關研究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977년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의 〈碩士學位論文〉 등 個人的이고 專門的인 研究活動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의 〈碩士學位論文〉(1981) 및 教育研究院의 《教育研究論文集》(1982) 등이 간행되어 教育研究를 학문의 세계로 이끌어 올리는 데 결정적인 기틀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70년대에 집중된 藝體能系 教科領域에 대한 연구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敎職領域別 研究에 있어서도 生活指導・學習指導 등의 教育方法에 관한 研究가 으뜸이던 것이 教育行財政의 문제까지도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라) 따라서 앞으로 濟州教育研究의 課題는 教育全領域에 걸친 研究活動이 필요하며, 특히 特別活動에 따른 情意的 領域이 중시되어야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幼兒教育和 特殊兒를 중심으로 하는 特殊教育研究가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現場研究의 자세와 태도로 研究를 위한 研究가 아닌, 實踐을 위한 研究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어진 여건으로는 최선을 다하여 社會科學分野의 제주연구를 1차 마무리 짓게 되었음을 우리 연구진들로서는 다행스럽게 여긴다. 다만, 社會科學分野 가운데에서도 여러 분야가 누락되었음을 아쉽게 여기는 바, 특히 女性分野, 地理分野 등의 논저수합과 논의는 꼭 시급한 실정이매, 가까운 시일안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차는 語文學・民俗分野(81년도)부터 착수해서 2차에는 歷史・考古分野(82년도)의 제주연구동향과 그 論著目錄을 제시하였고, 이번 3차로 社會科學分野를 鳥瞰해 보았지만은 본 연구소로서의 이에 대한 조사 연구 작업은 앞으로 한라산처럼 쌓였다. ①누락된 분야에 대한 기초작업, ②이미 이룩된 분야에 대한 論著目錄 보완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③본격적인 論著解題作業이 우리의 盡力を 기다리고 있다. ④또한 國外에서의 제주연구에

대한 학술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과, ⑤濟州研究와 밀착된 論著目錄의 수합과 논의 및 ⑥해방전의 論著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작업은 성실하고 줄기차게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